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전 홍 주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만 5세 유아의 또래갈등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 성별 갈등 양상을 중심으로 -

20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채혜원

만 5세 유아의 또래갈등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 성별 갈등 양상을 중심으로 -

전 홍 주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채 혜 원

인 준 서

채혜원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5월

심사위원장.....(인)

심 사 위 원.....(인)

심 사 위 원.....(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만 5세 학급의 하루 일과 중에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 전개양상, 해결 측면에서 여아들과 남아들의 또래 갈등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여아와 남아의 또래 간 갈등의 원인은 어떠한가?
2. 여아와 남아의 또래 간 갈등의 전개 양상은 어떠한가?
3. 여아와 남아의 또래 간 갈등의 해결 양상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경기도 성남시 S구에 위치한 하얀유치원 만 5세반 유아 28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5년 10월 12일부터 2015년 12월 23일까지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갈등의 시작부터 종결을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문화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기간 동안 주 2회씩 총 22회의 참여관찰과 교사와의 비형식적인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전사를 하고 반복하여 읽으며 범주화하였다. 범주별로 대표성을 띠는 제목을 붙이고 범주의 내용이 잘 드러나는 사례를 선정하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 간 갈등의 원인에 있어서 여아들과 남아들 간에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우선 여아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이나 놀이에서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났으며 남아들은 놀잇감이나 영역에 대한 소유권을 다투으로써 갈등이 일어났다. 또 다른 갈등원인으로 여아들은 또래친구

의 규칙 위반을 지적함으로써 갈등이 시작되었고 남아들은 또래친구들의 놀이방해를 함으로써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또래 간 갈등의 전개 양상에서는 여아들은 주로 언어적 전략으로 갈등을 전개시켰으며 남아들은 신체적 전략을 사용해 갈등을 전개시켰다. 또한 여아들은 또래 친구들과 집단으로 갈등을 해결하려 했으며 남아들은 주로 혼자서 갈등과정을 겪었다. 마지막으로 여아들은 주변을 의식하며 소리를 낮춰서 조용히 갈등을 펼쳐나갔으며 남아들은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감정을 표출하며 소리를 내어서 드러나는 갈등을 표현했다.

셋째, 또래 간 갈등의 해결 양상에서 여아들은 언어적으로 타협을 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였고 남아들은 지배적으로 밀어붙여 승부를 내고 나서야 갈등을 마무리 하였다. 또한 여아들은 친구들을 회유하여 갈등을 해결하였고 남아들은 상황을 회피하여 외면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였다.

본 연구는 또래 간 갈등의 원인, 전개, 결과의 전 과정에서 여아들과 남아들의 양상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아들과 남아들의 갈등양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아교육 현장에서 여아와 남아의 특성을 존중하고 고려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7
3. 용어의 정의	7
II. 이론적 배경	9
1. 유아기 또래 관계	9
1) 또래관계의 개념 및 발달	9
2) 또래 관계의 중요성	11
2. 또래 관계에서의 갈등	13
1) 갈등의 개념	13
2) 갈등의 원인	14
3) 갈등의 해결전략과 결과	16
3. 유아의 성별 특성	21
1) 여아와 남아의 발달 특성	21
2) 여아와 남아의 사회적 행동	23
III. 연구방법	29
1. 연구대상	29

1) 하얀유치원	29
2) 슬기반	30
3) 교사	32
4) 유아	33
2. 연구절차 및 자료수집 방법	34
1) 예비연구	34
2) 본 연구	36
3. 자료분석	38
IV. 연구결과 및 해석	40
1. 여아와 남아의 또래 간 갈등의 원인	40
1) 주도권 드러내기 vs 소유권 주장하기	41
2) 규칙위반 지적하기 vs 놀이방해하기	50
2. 여아와 남아의 또래 간 갈등의 전개 양상	56
1) 말로 하기 vs 몸으로 하기	56
2) 갈등 상황에서의 편먹기 vs 홀로 갈등 상황 직면하기	63
3) 은밀하게 다투기 vs 감정 표출하여 다투기	67
3. 여아와 남아의 또래 간 갈등의 해결 양상	72
1) 타협하기 vs 승부내기	72
2) 회유하기 vs 회피하기	76
V. 논의 및 결론	81
1. 논의	81
2. 결론 및 제언	90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 표 1 > 슬기반의 하루 일과	31
< 표 2 > 슬기반의 유아들	33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는 자신이 속한 사회 구성원들의 신념, 가치, 행동양식 등을 보고 배우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간다. 사회에 적합한 구성원이 되기 위하여 유아는 타인과의 긍정적인 대인관계와 상호작용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다. 유아기는 사회성 발달에 있어 초기 경험을 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과 협력하고 협동하며 타인에 대한 존중을 통해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능력을 습득해야할 결정적인 시기이다(강현경, 2009). 유아기에 형성되는 사회적 능력은 향후 유아교육기관이나 학교와 같은 또래 집단에서 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까지 중요한 영향을 끼치므로 유아기에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보현, 2008).

사회적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또래와의 관계는 유아의 사회생활과 관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차나림, 2003). 또래관계는 성인과의 수직관계와는 다른 수평적인 관계로써 자유롭고 동등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관계이므로 유아들이 실제의 사회적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하며 또래 관계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술과 행동을 학습하게 해준다(류미영, 2008). 유아기 또래 관계는 인지적, 신체적으로 유사한 발달단계에 있어 행동과 사고방식에 있어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서로의 행동에 대해 모방과 강화를 하는 등 유아의 가치관이나 태도 뿐 아니라 사회적 행동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윤수진, 2012).

유아들은 발달단계상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시기로 가정을 벗어나 유아 교육기관에서 많은 시간을 또래들과 지내다 보면 갈등이 생기게 된다. 또래 간의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놀잇감의 소유, 의견 대립, 경쟁심 등에 의해 일어나지만 갈등이 생성되는 또 다른 면은 자의식의 발달, 미숙한 사회성,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결핍 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김진영, 1998).

갈등은 유아들이 놀이를 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임에도 전통적으로는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성인들은 유아들이 갈등 상황에서 놀이에 거부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갈등이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사회적 문제로 보며(Shantz & Hobart, 1989) 갈등과정에서 유아들의 언어적·행동적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은 부정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같은 갈등의 부정적인 면은 유아의 이후의 또래관계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청소년기나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 부적응을 하거나 사회문제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현경, 2001).

그러나 현대적 관점에서의 갈등은 유아들의 사회적·인지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갈등 상황을 경험함으로써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고 고려하게 되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상대방과의 상충된 의견에 대하여 상호의사를 교환하여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김희진, 2001)고 보는 관점이다. 강의정(2006)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또래 갈등을 통해서 유아들은 갈등해결능력을 습득해나감으로써 사회적인 이해 및 조망수용능력을 향상시키고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발달시켜 또래집단에도 성공적으로 개입하게 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다른 연구들도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언어능력이 증진되고(임혜림, 2016; 최은혜, 2008) 대인문제 해결력이 향상되는 (장문경, 2015) 등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갈등에 관한 연구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선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놀잇감이나 영역의 소유권과 역할의 결정을 유아들의 갈등의 원인으로 보는 연구(고인옥, 2001; 문윤경, 2003)가 있으며 유아의 다양한 갈등해결전략을 다룬 연구(김송이, 2001; 김영희, 1999)도 있다.

최근에는 유아들의 갈등을 다양한 변인에 따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시간에 따른 갈등에 관한 선행연구(고인옥, 2001; 김균희와 이완정, 2006; 송명숙, 2007; 안지령, 1999; 정효순, 2000)는 활동시간에 따른 유아 간 갈등의 특성을 알아보았는데 활동시간에 따라 갈등쟁점, 갈등해결전략, 갈등상황에서의 정서표현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공간에 따른 갈등에 관해서 연구한 김희태(2001, 2002), 김유화(2008), 박유미(2003)는 교실과 실외 놀이터에서 일어난 갈등을 관찰하여 갈등의 양상을 분석하였고 구수진(2014)은 전이공간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양상과 해결방법에 관해 연구하여 공간에 따라 갈등 양상의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그 외의 다양한 변인에 따른 갈등에 관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기질에 따른 갈등 양상을 연구한 강효주(2012)는 유아들의 갈등상황은 기질에 따라 차이가 없으나 갈등해결전략에 있어서는 순한 기질의 유아가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보다 긍정적인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변인에 따른 갈등해결전략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은채(2005)는 아동의 갈등해결전략과 애착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아동의 애착에서의 신뢰감과 의사소통의 질이 갈등해결전략 중 절충과 협력 전략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김신형(2004)과 박향아(2005)는 또래갈등상황에서 유아들의 연령에 따라 갈등의 쟁점과 갈등해결전략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김송이(2001)의 연구에서는 또래지위와 친구관계에 따라 갈등해결전략이 다르게 나타나며

인기아가 비인기아에 비해 긍정적인 해결전략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성별과 관련된 연구에서 박향아(2012)는 갈등해결 전략에 있어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협력과 절충과 같은 친사회적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 밖에 교사의 개입에 따른 갈등양상 연구를 보면 류미영(2008)은 유아의 또래 간 갈등상황을 교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며 유아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극적인 개입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유희정(2004)은 영아들은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갈등의 변인으로서 유아의 기질과 성, 연령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갈등 특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중에서도 성차는 5-8개월된 어린 영아에게서도 나타나며(최영희, 1991) Carey와 McDevitt(1978: 김영희, 1999에서 재인용)도 4-8개월 영아의 기질에서 성차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유아의 성차에 관한 연구(성숙란, 2007; 조혜경, 2010)들은 여아의 사회적 능력이 남아에 비해 높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다. 유아 성별에 따른 놀이성의 관계를 다룬 연구(김현선, 2011; 박은주, 2008; 전화숙, 2001; 조영지, 2011)에서는 여아들은 인지적·사회적 자발성이 높고 남아들은 유머감과 신체적 자발성이 높다고 하였고 유아의 성에 따른 상호작용 유형차이 연구(김윤희, 2009; 홍지영 2009)에서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성수경(2009)의 연구 결과 만 5세 유아의 성별에 따른 또래유능성에서 여아가 친사회성과 주도성을 포함한 또래유능성에서 남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공격성에 관한 연구를 보면 김종훈(2010)은 성별에 따른 공격성을 연구하여 여아의 경우 관계적 공격성이 높고 남아의 경우 외현적 공격성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윤종선(2011)은 남아가 전체적 공격성에서 높은 양상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성차에 관한 연구는 주로 유아의 놀이성이나 사회성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갈등에 관한 연구는 성에 따른 갈등해결전략의 차이에 관한 연구(박향아, 2012)와 성 구성에 따른 갈등양상의 차이의 연구(김희진, 이지현, 2001) 등의 연구만 있었으며 질적연구를 통해서 깊이 있게 갈등양상을 살펴서 유아의 성차를 조명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유아들의 갈등에 관한 질적연구로는 갈등상황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권경숙, 2002; 박선희, 2015)가 있는데 권경숙(2002)은 영아들의 갈등을 연구하였으며 박선희(2015)는 자유선택활동 시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또한 황현숙(2003)은 기질이 다른 세명의 유아의 갈등해결방식을 질적연구하였으며 고인옥(2001)과 박희숙(2009)은 갈등상황에서 교사의 개입전략을 질적연구하였다.

유아교육기관의 교실은 신체활동이 많은 남아들보다는 정적이며 언어적 상호작용이 많은 여아들에게 더 적합하므로 실제 교육현장에서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더 많은 이점을 갖고 있고 남아들은 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ommers, 2000: 손원경, 손유진, 2007에서 재인용). 대다수의 유아 교사들이 여성이므로 ‘남성적’인 행동보다는 ‘여성적’인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Hyun & Tyler, 2000) 비언어적이고 신체적인 활동이 많은 남아들만의 특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이빛나, 2005). 그러므로 여아와 남아에 대한 올바른 성 인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진정한 양성평등 교육을 위해서 성차를 반영하는 교육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아의 성별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는 것은 교사들에게 성별에 따른 적합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갈등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벗어나서는 파악할 수 없으며 이해할 수 없다(김희태,

2004). 유아들은 일상적인 유치원의 하루 일과 속에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해나가는데 이러한 갈등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갈등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을 벗어나서는 심도 깊은 이해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면담이나 가설적 갈등 상황에서 갈등 양상과 갈등해결 방법을 살펴 보았으나 역동적인 갈등의 특성이나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다.

여아들과 남아들의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탐색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또래들의 집단 내에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유아들의 실제 생활에서 유치원 교실 안과 밖에서의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유아들 간의 갈등 모습을 단면이 아니라 갈등의 시작에서 종결 시점까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의 하루 일과 시작에서부터 마무리 시간까지 유치원 교실에서 뿐만 아니라 실외활동에서 발생하는 유아들 간의 갈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갈등의 원인, 전개 양상과 해결방법에서 나타나는 성차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하여 여아와 남아의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현장에서 교사들이 여아와 남아에 대한 성차를 존중하는 적절한 지도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 1) 여아와 남아의 또래 간 갈등 원인은 어떠한가?
- 2) 여아와 남아의 또래 간 갈등 전개 양상은 어떠한가?
- 3) 여아와 남아의 또래 간 갈등 해결 양상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1) 또래 갈등

또래란 서로 연령이 비슷하고 동등한 위치에 있는 유아들의 그룹을 말하며(Hartup, 1983) 또래 갈등이란 또래들 사이에서 상반된 욕구나 요구로 인해 상대방과 의견이 대립되어 발생하는 것이다(Hartup, 1989; Hay, 1984; Shantz, 1987)

본 연구에서의 또래 갈등은 두 명 이상의 또래 간에 대립되는 생각이나 목표로 인해서 불화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게 그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갈등의 해결

갈등의 해결은 유아들이 갈등과정에서 자신의 목적이나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언어적·신체적·친사회적·반사회적 등의 모든 전략을 사용하여 갈등을 종결하는 것으로(유희정, 2002) 효과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또래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능력을 발달 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였다(김영희, 1999).

본 연구에서 ‘갈등의 해결’은 또래 간의 갈등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다양한 해결전략을 사용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것인데 이러한 해결이 갈등 당사자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고 불만족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다. 또한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유아기 또래 관계

1) 또래관계의 개념 및 발달

유아기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 친구들과 만나면서 또래집단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유아는 유아교육 기관에서 사회경험을 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또래와의 다양한 경험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므로 또래관계가 유아의 생활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래(peer)에 대하여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Hartup(1983)은 유사한 연령을 가지고 서로 평등한 위치에 있는 유아를 또래라고 하였으며 문윤경(2003)은 비슷한 발달 수준에 의해 비슷한 상호작용을 하는 비슷한 연령 유아들을 또래라고 하였다. 최근의 또래에 대한 연구들은 전체적인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또래라는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므로 또래라는 범주에 같은 연령의 유아만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회적 지위와 유사한 행동 복잡성을 가진 유아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추세이다(최혜원, 2012). 즉 또래란 연령, 흥미, 관심거리, 사회적 지위, 신체적·정신적·인지적 발달과 행동의 복잡성이 유사한 동등한 지위에 있는 집단을 의미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유아들은 또래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유아들의 또래관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진다(문무경, 2005). 생후 1개월부터 다른 아기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생후 6개월만 되어도 다른 아기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6-10개월 정도에는 또래들에게 웅얼이, 미소짓기, 소리

내기, 응시하기 등의 행동을 하지만 이 시기에 보이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매우 단순하다(Shaffer & Kipp, 2014; 김부영, 2016에서 재인용).

12-18개월의 걸음마기 영아는 다른 영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좀 더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며 또래 영아를 모방하기도 한다. 즉 영아기에도 기본적인 우정의 표시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생후 2년 정도 되어야 운동능력과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발달하여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행동의 습득이 이루어진다(채혜희, 2014).

유아기에 이르면 유아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도 활발해지고 다양해지며 비교적 안정된 또래관계를 형성하게 된다(황소영, 2011). 2-5세 사이의 유아들은 다른 사람에게 사회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게 되고 3-4세의 유아들은 또래들과 놀이를 하면서 장난감도 공유하고 빌려주기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또래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언어적 상호작용을 많이 하게 된다. 4-5세의 유아들은 또래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유아들은 점차적으로 정교하고 다양한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한다(Hartup, 1983).

유아들은 놀이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또래관계는 유아들의 놀이에 많이 나타난다. 유아의 놀이형태는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Parten, 1932; 채혜희, 2014에서 재인용) 초기의 놀이는 사회적 행동이 없는 방관자 놀이나 단독놀이로 시작하여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또래관계를 확장시키며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는 연합놀이와 협동놀이가 나타나게 된다.

종합하여보면 또래는 발달이 비슷하고 평등한 관계에 있으며 유아들은 영아의 발달을 기반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또래들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 기술을 습득해나가면서 또래관계를 발달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 또래 관계의 중요성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또래집단에서 많은 사회적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사회적 경험을 토대로 사회적 능력을 습득하게 되므로 또래관계는 유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황소영, 2011).

또래는 서로에게 중요한 역할 모델로서, 강화자로서, 사회적 비교 대상으로서 기능할 뿐 아니라 사회적지지 역할을 한다(Shaffer & Kipp, 2014: 김부영, 2016에서 재인용). 유아들은 또래들을 역할 모델로 생각하여 또래들의 행동이나 언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래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게 된다. 또래들의 평가나 비평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또래들과 어울리고 인정받기 위하여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 등을 변화시키게 되어 또래는 강화자의 역할도 하게 된다. 또한 유아들은 또래들을 비교준거 대상으로 여기어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자신의 자아상이나 자아개념을 형성해나간다. 이처럼 또래는 역할 모델로서, 강화자로서, 비교준거의 역할을 하여 유아들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김보현, 2008)

또한 또래 관계는 초기의 부모, 형제 등의 가족 내의 관계 형성과 사회적 발달 뿐만 아니라 이후의 인지적·사회적·정서적 발달에도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게 되어 성인이 되었을 때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행동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최혜원, 2012).

우선적으로 또래관계는 유아들의 인지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유아들은 또래들과 대화를 통해서 다른 관점을 인지하게 되고 이전의 사고를 수정하고 새로운 개념들을 수용하게 되며 새로운 상황에 적응이 쉬워지고 문제해결을 하는데 있어서도 확장된 지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기중심적이고 직관적인 사고를 벗어난 사회·인지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 도덕적인 감성, 가치, 의사소통 기술 조망수용 능력 등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된다(김보현, 2008). 또래 관계는 언어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또래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언어습득, 언어 추리력, 이해력, 표현력 등을 향상시키며 의사소통능력도 증가한다(박정란, 2008).

또한 사회적 발달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또래관계는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작용을 하므로 또래들과 갈등도 발생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정에서는 배우기 어려운 다양한 사회적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조영화(2004)의 연구에 의하면 또래 간의 칭찬하기 활동은 친사회적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또래 간의 친사회적 행동을 더욱 강화시킨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또래관계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또래관계는 유아의 정서적 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또래관계는 수평적이고 권위적이지 않는 동등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서로간의 감정이나 생각, 느낌을 자유롭게 나타내면서 서로간의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어 정서인식이나 정서조절능력을 키울 수 있다(위영희, 2004; 장휘숙, 2001).

이와 같이 또래관계는 유아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초기에 경험한 또래관계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이후의 또래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황소영, 2011). Howes, Hamilton과 Pilipsen(1998: 최혜원, 2012에서 재인용)의 종단적 연구에서 4세 때 경험한 도움, 인정하기 등과 같은 또래관계의 긍정적인 특성으로 9세 때 친구관계의 긍정적인 특성을 예언하였는데 이는 유아 초기의 또래관계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대로 유아기에 또래와의 경험이 긍정적이지 못했을 경우 사회적응과 발달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정덕희, 2010). 양현정(2000)의 연구에서 유아기에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겪는 어려움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 유아기의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역할 모델과 강화자, 비교준거의 역할을 하며 또래관계는 유아들의 인지적·사회적·정서적 발달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며 초기의 또래관계가 이후의 사회적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또래 관계에서의 갈등

1) 갈등의 개념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로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유아들도 유아교육기관과 같은 사회집단에서 다른 유아와 교사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갖으며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갈등’에 대한 개념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갈등이라는 한자를 보면 좁과 등나무라는 뜻으로 좁과 등나무가 얽히듯이 일이나 사정 등이 복잡하게 뒤얽혀 화합하지 못하는 모양을 이른다. 더 나아가 서로 대립되는 견해나 이해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충돌 또는 정신적인 세계 내부에서 각기 다른 방향을 지닌 힘들이 충돌하는 상태를 갈등으로 정의하고 있다(심리학용어사전, 2014). 갈등은 개인이나 집단 내부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외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Shantz(1987)는 갈등이란 서로간의 관심, 주장, 동기, 태도, 욕구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으로 구성원들 간에 의견이나 행동이 불일치되어 불화가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였다.

Hay(1984)는 ‘갈등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반대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 발생 한다’하며 갈등은 두 사람 이상 사이에서 발생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나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유아들은 또래간의 관계 속에서 의견대립, 감정대치, 이익상충 등으로 갈등을 겪게 되는데 갈등은 신체적 공격과 언어적 공격과 같은 반사회적 문제 행동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만 간주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아들이 갈등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어 중요한 학습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갈등이 유아의 사회적·인지적·도덕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Shantz, 1987).

이와 같이 유아들의 갈등은 유아들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유아들의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갈등의 원인

두 명 이상의 유아들이 있을 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않던 간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거나 의견이나 생각의 대립이 생겼을 때 갈등이 발생한다. 유아들은 자신들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사회적 기술이 아직 부족하므로 많은 갈등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유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주요한 원인으로서는 물건이나 영역에 대한 소유권 분쟁, 역할을 결정하면서 일어나는 의견대립, 상대방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공격 등이 있다.

유아들의 갈등의 원인으로 가장 많은 것은 소유분쟁에 관한 것이다(고인옥, 2002; 김균희, 이완정, 2006; 김희진, 이지현, 2001; 류미영, 2008; 문윤경, 2003; Hay, 1984; Shantz, 1987). 유아들은 교육기관에서 한정된 물건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먼저 차지하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욕구와 소유욕에 의해서 갈등이 많이 발생되었다(권경숙, 2002). 즉 희소자원을 놓고

서로 소유하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경쟁을 하다보면 한 쪽은 다른 한 쪽 보다 덜 차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갈등의 유발되고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유발되게 된다. 또한 이 공간이나 자신의 고유 공간을 침해당했을 때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고인옥, 2002; 문윤경, 2003; 엄정례, 1997) 주로 어린 연령에서 물리적인 것의 소유권에 대한 갈등이 많았다(엄정례, 1997; Shantz, 1987).

유아들은 또래들과 놀이를 할 때 갈등이 많이 발생한다. 놀이를 하면서 역할결정을 할 때 특정한 역할을 서로 맡으려 하거나 역할 분담이 공평하지 않게 되어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 이러한 갈등은 특히 여아의 놀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진, 이지현, 2001; 문윤경, 2003; Shantz, 1987).

또한 모욕하기, 약 올리기와 같이 심리적 해를 끼치거나 때리기, 밀기와 같은 신체적으로 해를 끼침으로써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김균희, 이완정, 2006; Killen & Turiel, 1991; 유희정, 2002에서 재인용). 그 외에 놀이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상대방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며(강효주, 2012; 고인옥, 2001) 놀이규칙을 위반하거나 놀이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도 갈등이 많이 발생한다(강효주, 2012; 고인옥, 2002; 김희진, 이지현, 2001; 류미영, 2008, 문윤경, 2003; 엄정례, 1997; 허정경, 2010; Hay, 1984; Shantz, 1987).

Malloy와 McMurray(1996)는 갈등의 원인에 대하여 좀 더 세분화하여 7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사물에 대한 소유(object acquisition), 귀찮게 하기(annoyance), 놀이 그룹 참여(group entry), 놀이진행 변경(change in the course of play), 공간 침해(invasion of space), 규칙 위반(defying school rules), 친구의 행동을 방해하는 행동(stopping other's action)으로 나누었다.

즉 사회적 행동의 발달 단계에 있는 유아들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데 가장 주요한 갈등의 원인은 놀잇감이나 공간의 소유권, 역할결정, 의견의 대립, 놀이 방해 등으로 종합할 수 있다.

3) 갈등의 해결전략과 결과

유아들은 일단 갈등이 발생하면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해결 전략을 사용한다. 유아들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래 친구의 생각이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친구를 이해하게 되고 동시에 자신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히는 경험을 하게 되어 친구와 관계의 질도 향상되며 또래 집단에도 잘 개입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격, 속임, 또래거부와 같은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갈등도 심화되며 또래 친구와의 관계 유지도 어려워지게 된다(강의정, 2006). 이는 유아들의 갈등 해결 과정이 유아들의 사회적 행동과 사회적 능력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김영희, 1999).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유아들이 사용하는 갈등해결방법은 크게 언어적 전략과 비언어적 전략으로 구분된다. 자주 사용되는 언어적 갈등해결전략으로는 ‘이유 설명하기’(문윤경, 2003; 엄정례, 1997; 이지영, 1997)를 들 수 있는데 이 전략은 언어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하고 고려하여 서로 협력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여 절충하는 방법으로 긍정적인 해결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유사한 의미의 갈등해결전략으로는 의논하여 양쪽 다 이해 가능한 새로운 방법을 찾는 협상하기(박향아, 2012; Eisenberg와 Garvey1981; Shantz, 1987), 제안하기(고인옥, 2002), 설득하기(Shantz, 1987), 대안제시하기(김희진, 이지현, 1997; Eisenberg와 Garvey, 1981; Malloy와 McMurray, 1996)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전략은 유아들이 연

령이 증가할수록 많이 사용하였다(김희진, 이지현, 2001). 이와 같은 갈등 해결전략은 놀이규칙 정하기나 역할 정하기로 인한 갈등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며 이러한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긍정적인 해결이 될 수 있으며 친구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김희진, 이지현, 2001).

언어적 방법으로 빈번하게 사용된 것은 ‘고집하기’이다(김희진, 이지현, 1997; 문윤경, 2003; 엄정례, 1997; Eisenberg와 Garvey, 1981; Malloy와 McMurray, 1996). ‘고집하기’는 상대방의 의견이나 요구에 상관없이 자신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는 갈등해결전략이며(이솔아, 2013) 어린 연령의 유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김영희, 1999). 이와 비슷한 갈등해결전략으로는 협박하기(엄정례, 1997; Eisenberg와 Garvey, 1981; Malloy와 McMurray, 1996), 주장하기(Shantz, 1987; 박향아, 2012), 명령하기(이지영, 1997) 등이 있다. 이러한 갈등해결전략은 주로 소유권이 쟁점이 되는 갈등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며 이 경우는 승자와 패자가 분명하게 나누어지며 갈등이 종결되었다(Shantz, 1987). 그 밖의 언어적 전략으로는 울기와 놀리기, 유머 사용하기(고인옥, 2002), 거래하기(Shantz, 1987) 등이 있다.

언어적인 전략과 대비되는 전략으로 비언어적인 전략도 많이 사용되는데 공격적인 전략으로 잡아당기기, 때리기, 밀기, 차기 등과 같은 신체적 공격을 사용하는 갈등해결전략이다(김희진, 이지현, 1997; 문윤경, 2003; 엄정례, 1997; Malloy와 McMurray, 1996). 이러한 전략은 어린 연령일수록 많이 사용하였고 사물소유가 원인인 갈등상황에서 많이 사용하였다(문윤경, 2003)

다른 비언어적인 전략은 ‘회피’이다(송명숙, 2007; 한제인, 1994; Eisenberg와 Garvey, 1981; Malloy와 McMurray, 1996). 회피는 유아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싶으면 그 상황을 일단 피하거나 갈등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도 언급을 피하는 갈등해결전략이다. 이와 비슷한 전략으로 무시하기와 상

대방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전략(Malloy와 McMurray, 1996)이 있는데 ‘무시하기’와 같은 전략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자신만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상대방은 고려하지 않는 행동으로 주로 어린 연령에서 많이 나타나는 전략이다(김희진, 이지현, 2001).

유아들의 갈등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주로 갈등의 원인이나 갈등의 해결방식인 갈등해결전략에 많은 관심을 보여 연구되었으나 갈등의 결과에 대한 연구들은 많지 않았다.

갈등의 해결이란 상대방이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며 반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유아들은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힘이나 연령의 특권을 사용하여 불공정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어 갈등해결이 항상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엄정례, 1997). 유아들 간에 일어난 갈등의 경우는 대부분 양쪽 다 만족한 상태로 갈등이 해결되었지만(김송이, 2001) 물건에 대한 소유권 다툼으로 인한 갈등의 경우 해결주체와 상관없이 어느 한 쪽만 만족하는 상태로 갈등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다(유희정, 2004).

김균희(2006)는 갈등의 결과를 갈등이 평등하게 해결된 경우와 어느 한 쪽만 만족하는 승패가 있는 경우, 해결되지 않고 종료되는 경우로 나누었다. 또한 갈등종결전략에 따라 갈등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였으며 갈등상황에서의 정서표현도 갈등결과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유아들은 갈등해결의 결과에 따라 모두 만족하기도 하고 한 쪽만 만족하기도 하고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기도 하지만 결과에 관계없이 또래 유아와 지속적인 교우관계를 갖고자 한다(김신형, 2005)

이상에서 살펴보아 온 바와 같이 유아들은 갈등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이해시키면서 자신의 의도대로 상대방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언어적 전략, 비언어적 전략 등의 다양한 전략을 상황적 맥락에 따라 사용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으며 갈등의 해결은 갈등의 원인이나 갈등해결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갈등 해결이 항상 바람직한 결과일 수는 없으며 때로는 갈등의 결과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4) 성별에 따른 갈등

유아들은 출생과 더불어 성정체성을 가지며 성유형화 되어 가고 여러 가지 발달적 측면에서 성차가 나타나므로 갈등의 양상에서도 성차를 찾아볼 수 있다.

우선 갈등의 빈도수에서 보면 여아들에 비해 남아들에게 갈등이 많이 발생하였다(김신형, 2005; Miller, 1986; Shantz, 1986).

갈등의 원인에서도 여아들과 남아들에게서 성차가 나타났는데 여아들의 경우는 놀이의 역할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신의 의견과 대립이 있을 때 갈등이 발생하였고 집단에 가입을 하려고 할 때 갈등이 많이 발생하였으며(김희진, 이지현, 1997; 문윤경, 2003; Hay, 1984) 남아에 비해 사람통제나 사회적 통제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갈등이 많았다(고인옥, 2001; Hay, 1984). 남아들의 경우는 소유권의 문제와 같은 사물의 통제나 놀이방해, 신체공격으로 인한 갈등이 많았다(김희진, 이지현, 1997; 문윤경, 2003; Eisenberg, 1996; Hay, 1984). 즉 여아들 간의 갈등은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가 많은 반면 남아들 간의 갈등은 힘과 권력에 대한 문제가 많았으며 이는 청소년기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Hongling, 1999; Youniss & Smollar, 1985; 김송이, 2001에서 재인용).

갈등의 해결과정에서도 여아들과 남아들 간의 성차를 찾아볼 수 있었다. 여아들은 우선적으로 언어적인 해결방법(김희진, 이지현, 2001)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힘이나 강력한 요구보다는 친사회적 전략인 협력이나 협상 등을

많이 사용하였으나(김희진, 이지현, 2001; 박향아, 2012; 송미선, 2001; Hartup, 1992; Miller, 1986) 언어적인 공격성은 남아들에 비해 여아들에게서 많이 나타났다(Shantz, 1986). 반면 남아들은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전략을 많이 사용하여 공격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신체적 공격도 여아들에 비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향아, 2012; Chunt & Asher, 1996; Hay, 1984; Shantz, 1986).

많은 연구들이 여아들은 친사회적인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남아들은 지배 전략이나 신체적인 공격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는데(김송이, 2001; 김희진, 이지현, 2001; 박향아, 2012; 송미선, 2001) 이는 여아들은 조화로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으나 남아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Miller, 1986). 또한 이러한 차이는 성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고정관념과도 관련이 있는데 ‘여자는 온순하고 조용해야한다’ 와 ‘남자는 씩씩하고 용감해야한다’는 등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양육되면서 습득하게 된 성역할에 대한 기대로 인해 나타나게 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김지현, 이지현, 2001).

한편 문윤경(2004), 배미자(2012), 현우자(2009)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성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성차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상과 같이 성별에 따라 갈등의 원인이나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밝힌 연구결과와 더불어 갈등해결전략 면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이는 유아의 갈등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알아보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유아의 성별 특성

1) 여아와 남아의 발달 특성

여성과 남성의 뇌는 모양, 크기, 세포 수, 뇌가 상호 연결된 범위 등에 있어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남성의 뇌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뇌보다 크며 무게도 100g 정도 더 무겁고 신경세포의 수도 더 많다(손영숙 외, 2004). 크기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분포도 달라서 남성의 경우 지능을 담당하는 부위가 뇌 전체에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전두엽에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김지은, 진건, 2005).

여성과 남성은 뇌의 구조에 의해 언어 능력의 차이를 보이는데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언어와 관련된 뇌 신경 세포수가 15-20 퍼센트 가량 더 많고 뇌량의 크기도 크다(Bonomo, 2010). 남성은 언어 기능을 좌반구에만 의존하는 반면 여성은 좌반구와 우반구에 함께 의존하므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감정이나 공감을 표현하는 언어적 능력이 우세하다. 여아의 경우도 남아에 비해 언어가 4주일 정도 더 일찍 발달되기 때문에 말도 일찍 시작하고 어휘의 발달에 있어서도 빠른 성장을 보인다(김영진, 2004).

시각과 청각에 있어서도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있었는데 시각에 있어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일찍 발달하여 기능도 강하고 청각은 좌뇌만을 사용하여 듣는 남아보다 양쪽 뇌를 사용하여 듣는 여아가 더 예민하고 잘 듣는다(이빛나, 2015).

공간감각에 대해서도 보면 남성은 좌측 해마 부분이, 여성은 우측 측두엽과 우측 전전두엽 부분이 관여하는 등 뇌의 구조와 기능에 남녀 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김지은, 진건, 2005)

이러한 뇌의 차이에 의해 여성은 주의 집중, 언어, 얼굴 기억, 추론 속도 면에서는 남성보다 높은 수행능력을 보였으며 남성은 감각운동, 운동 속도, 공간 처리 면에서 우월한 수행능력을 보였다. 또한 뇌신경의 차이에 의해 남성은 주어진 정보를 순간적으로 활용하여 한 가지에 집중하는 능력이 뛰어난 반면 여성은 사회적인 지각력이나 기억력이 높아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멀티 태스킹에 뛰어나다는 것이 밝혀졌다(Bonomo, 2010).

이와 같이 여성과 남성은 뇌의 구조와 기능의 생물학적인 차이에 의해서 언어능력, 청력, 시력, 공간감각, 운동력 등 다양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신체적인 발달에서도 여아와 남아의 차이가 나타난다. 여아와 남아의 신체적 발달의 특성을 보면 다른 영역의 발달과 마찬가지로 유아의 신체적 발달은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발달해 나간다. 키와 몸무게는 대체적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편이며 근육의 경우도 남아가 여아보다 1.5 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7세 이후부터는 성차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사춘기 이후에는 이러한 성차가 많이 드러난다(손영숙 외, 2004).

대근육과 소근육 발달은 만 3세부터 시작되어서 7세까지 연령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대근육은 남아가 우수하고 소근육 운동은 여아가 우수하였고 민첩성, 순발력, 평형성 등과 관련된 운동 유능감은 남아가 여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대근, 2005). 이러한 특성으로 남아는 여아보다 던지기나 멀리뛰기와 같은 대근육 운동에 뛰어나고 이에 비해 여아는 정교한 운동 협응을 필요로 하는 조작놀이 등과 같은 활동을 즐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명희 외, 2016).

신체활동은 여아와 남아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즐겨하지만 남아의 경우 여아에 비해 거친 신체활동을 많이 했으며 여아는 거칠고 과격 한 행동보다 친밀감을 표시하는 행동을 많이 보였다(고여훈, 2013). 남아들은 여아

들에 비해 과격한 신체활동을 즐기며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에 있어 여아들에 비해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손원경, 2011).

신체발달 뿐만 아니라 언어발달에 있어서도 여아와 남아 간에 성차가 나타난다. 뇌 생리적 조직화의 차이로 남성은 언어적 처리를 좌반구에 제한시키며 대부분의 정서처리를 언어적으로 침묵하는 우반구에 제한하므로 여성에 비해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진, 2004).

언어발달 속도도 남아에 비해 여아가 빠르며(고순옥, 2004)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꾸미는 표현력에서도 여아가 남아보다 높았으며(정윤이, 2012) 성별에 따른 수용언어, 표현언어, 전체언어의 발달을 볼 때 전체적으로 여아의 발달 점수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조수진, 2013).

또한 (신명희 외, 2016)에 의하면 여아는 남아에 비해 언어능력이 뛰어난데 특히 여아는 미세하게 조절되는 움직임에 있어 남아에 비해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 텅 트위스터(tongue twister, 혀가 잘 돌아가지 않는 문장 말하기)를 더 정확하고 유창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신체발달이나 언어발달 측면에서 여아와 남아의 성차가 나타났는데 운동능력은 남아가 우수했으며 언어능력은 여아의 발달이 남아에 비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 여아와 남아의 사회적 행동

유아의 사회적 행동 발달은 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양상과 마찬가지로 다소의 개인차는 있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공통적으로 일정한 순서를 밟으며 발달해 간다(Brownell & Hazen, 1999: 황소영, 2011에서 재인용).

영아는 생후 3개월이 돼서야 인간과 사물을 구별하는 등의 사회적 행동을

보이게 된다(차경수, 2008).

영아기에는 울기, 응시하기, 미소 짓기, 옹알이 등을 통해서 의사표현을 하고 낮가림, 모방, 애착 활동 등의 기초적인 사회적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낮가림은 영아가 애착 대상이 아닌 낯선 사람들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를 나타내는 반응이고(박찬옥 외, 2001) 모방은 애착관계에 있는 성인을 모방하는 것으로 영아의 사회성 형성에 중요한 행동이다(강현경, 2009).

유아기에 이르러 유아들은 가정이라는 곳을 벗어나 유아교육기관 등에서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되어 가족 이외의 또래친구와 교사 등의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됨으로써 새롭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배우고 발달시켜 나간다. 이 시기의 유아가 가정 밖의 사회집단이나 또래집단,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배우게 된 사회적 행동들은 이후 유아가 새롭게 접하게 되는 사회나 인간관계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 준다(조순옥, 이경화, 배인자, 이정숙, 김정원, 민혜영, 2003).

유아들은 3, 4세경부터 언어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져 언어를 통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4, 5세부터는 자아개념이 발달하여 탈중심화되어 가는 등의 사회적 발달을 해나가면서 협동, 경쟁, 관용,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망, 동정, 공감적 이해, 의존성, 이타심, 모방, 애착행동 등의 사회적 발달 특성을 갖게 된다(신명희 외, 2016).

이 시기부터의 유아들은 사회집단에서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자아개념을 형성해 가는데 특히 또래집단에서의 사회화 경험을 통해서 사회적 행동을 발달해 간다. 또래들 간의 관계는 유아가 가정 밖에서 갖게 되는 최초의 동등한 관계로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적·인지적 발달을 하게 되며 사회적 지식을 배워가는 등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시기의 사회성 발달은 성인이 되었을 때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이정분, 2001).

사회적 행동의 발달과정에서 유아들은 사회적 기술의 부족으로 다른 사람이나 또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나 갈등도 겪게 된다. 즉 유아들은 다른 사람이나 또래와 관계를 형성하거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반항적 행동, 공격성, 말다툼, 우월성, 이기주의, 편견, 성 적대감 등의 부정적인 사회적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조순옥 외, 2003)

여아와 남아는 신체 발달과 언어 발달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동 측면에서도 성차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권연희, 2003; 문혁준, 2010; 유희정, 2008; LaFreniere et al, 2002; 황소영, 2011에서 재인용). 사회적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고려하며 사회적 갈등 상황을 해결해나가는 사회적 능력은 대체로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해 유능한 것으로 나타났다(Eisenberg, 1996). 여아가 남아에 비해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반면 남아의 경우는 친사회적 행동을 적게 하며 부정적 행동도 여아들보다 더 많이 하여 사회적 정서적 적응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문혁준, 2010). 이는 여아들은 남아들과 달리 관계지향적인 성격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효율적인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능력을 실행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되고 있다(박영아, 2010). 한편 친사회적 행동의 전반적인 사회적 행동들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었다(박화윤, 안라리, 2006).

공격성을 보면 일반적으로 남아가 생물학적으로 외현적인 공격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고현희, 2008). 그러나 유아기 여아들은 직접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반면 남아들은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신체적·언어적 공격 성향이 높았다는 연구결과와(신유림, 2008) 여아들과 남아들과의 공격성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서미정, 2011) 관계적 공격성에서도 유의미한 성별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이성복, 2011) 연구결과를 볼 때 연구결과들이 일관적이지 않다.

또래놀이 상호작용에서도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여아들은 남아들에 비해 더 친사회적이며 관계 지향적이지만 남아들은 여아들보다 공격적이며 지배적이다(박주희, 2001). 여아들은 언어적 상호작용을 많이 하며 협력적이고 관계를 중요시하는 반면 남아들은 힘으로 또래 갈등을 해결하고 계층적인 구조를 구성하여 지배집단을 유지한다고 하였다(권연희, 2012).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표현하며 또래와의 관계에서 또래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능력인 유아주도성(박주희, 2001)에서도 성차가 나타나는데 여아들은 협력적이고 긍정적인 주도적 놀이역할을 많이 보이지만 남아들은 지시적이고 명령적이며 신체 및 운동에서 주도성과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백지연, 2007). 이러한 또래놀이 상호작용이나 주도성과 같은 사회적 행동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사회화 과정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유아의 놀이행동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강유진, 2013). 반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는 성차가 없다고 하는 연구(배윤정, 2011)도 있었다.

유아들의 사회적 행동과 밀접한 관계인 놀이에 관해 살펴보면 우선 놀이 형태에서 성차가 나타나는데 여아들은 혼자 하는 기능놀이나 극놀이와 같이 앉아서 하는 놀이를 좋아하며 정적인 놀이를 선호하고(장은주, 1999) 사회적 놀이행동이 남아에 비해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조은옥, 2002). 남아들은 거친 신체활동과 같이 밖에서 하는 활동적인 신체놀이를 좋아하며(고여훈, 2013) 여아들에 비해 평행놀이나 집단놀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은주, 1999). 신체놀이를 남아들이 선호하는 것은 남아들이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생물학적 요인과 양육태도와 사회화와 관련된 환경적 요인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이지영, 2007). 반면 성별에 따른 놀이행동에 있어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었다(김성민, 2001; 신명희, 2004).

놀이와 관련된 놀잇감에 관한 연구들은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성유형화된 놀잇감을 더 선호하고(김기경, 1993) 더 활동적인 놀잇감으로 놀이를 하도록 격려를 받는데 이는 남아에게 더 적합한 성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놀잇감을 선택하는데 많은 제약을 가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Rackliff & Ragg, 1998: 조재은, 2001에서 재인용). 또한 놀이 영역에서도 성차가 나타나며 여아들의 경우 소꿉영역, 미술영역, 역할놀이, 언어영역을 선호하고 남아들은 블록영역, 과학영역, 율동영역, 수·조작영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광자, 1993; 김성민, 2001; 이지현, 1998; 이희선, 2006). 놀이형태에 비해 놀잇감이나 놀이영역에 대한 성차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일관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놀이에 대한 태도와 성향인 놀이성(playfulness)에 있어 성차에 대한 연구는 일관적이지는 않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해 인지적 자발성이나 사회적 자발성은 높고 남아들은 여아들보다 유머감각이 높고 신체적 자발성이 높은 것으로(김현선, 2011; 박은주, 2008; 백지연, 2007; 최연화, 2011) 나타났다. 유아들은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사회적·물리적 환경과 가치관, 경험 등을 갖고 성장하게 되므로(김희진, 이지현, 2001) 놀이성에 나타나는 성차의 양상이 매우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도 성차가 나타나는데 협조성과 친사회성, 조직적 기술이 남아에 비해 여아가 높게 나타났으며(김윤희, 2013) 놀이 상황에서 놀이를 이끌어 가는 주도성과 놀이 상황에서 다른 친구들의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조력하는 민감성도 여아가 높게 나타났다(이난주, 2012).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갖는 지를 이해하여 상대방의 정서에 맞추어 적절하게 반응하는 공감하기(empathizing)(Baron-Cohen, 2003)에서도 성차를 찾아 볼 수 있다. 여아는 남아에 비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높아서 친밀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김아름, 2009; 나희정, 2010; 이정아, 2011). 그러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홍화진(1987)의 연구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박은혜 등(2009)의 연구에서는 남아와 여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찾을 수 없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유아들은 뇌구조와 같은 생물학적 차이와 발달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행동에도 성별에 따른 특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성차에 관한 연구들은 일관적이지 않아 차후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종합하면 유아들은 또래들과의 다양한 갈등을 겪으며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능력을 습득해나가는데 이러한 갈등과정에서 여아들과 남아들 간에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즉 유아들은 생물학적 차이와 사회화의 영향으로 유아들에게서 발달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동 등 다방면에서 다양한 양상을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또래갈등에서 나타나는 여아와 남아의 다양한 양상은 사회 환경적인 맥락에서 갈등을 조망함으로써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갈등상황의 시작부터 종결 후까지의 전체 과정을 유아들의 놀이 맥락 속에서 관찰함으로써 여아들과 남아들의 갈등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성차의 양상을 알아보려고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하안유치원

하안유치원은 경기도 성남시 S구에 위치한 사립유치원으로 1994년에 개원하였다.

하안 유치원은 만 3세 3학급, 만 4세 3학급, 만 5세 2학급으로 총 8개의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직원은 총 16명으로 원장, 부원장, 원감, 담임교사 8명과 보조교사 5명, 조리사 2명과 영양사가 근무하고 있다. 본 연구대상 학급인 슬기반은 1명의 담임교사와 1명의 보조교사가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하안유치원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단독 건물로 외부에는 실외 놀이터가 마련되어 있고 놀이터 한 쪽 편에는 유아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정자가 있다. 유치원 내부는 지하 1층에는 강당과 유아들 실내 놀이 공간으로 볼풀장이 있고 주방과 식품보관실이 있다. 1층에는 만 3세반 교실 2학급과 각각의 교실에 화장실이 있고 교사실, 원장실과 간식실이 있다. 2층에는 만 3세 학급 교실과 만 4세 학급 교실이 2개 있으며 화장실 2개와 간식실과 교구보관실이 있고 3층에는 만 4세 학급 교실 하나와 만 5세 학급 교실이 2개 있고 마찬가지로 화장실과 간식실, 교구보관실이 있다.

2) 슬기반

슬기반은 만 5세 유아 25명과 담임교사, 보조교사가 함께 생활하는 곳으로 유치원 3층에 위치하고 있다. 유아들은 유치원 현관에 들어서서 1층 거실의 오른 편에 위치한 신발장에 신발을 두고 계단을 올라 3층의 슬기반에 들어가게 된다. 계단으로 올라오는 벽면에는 하얀유치원 유아들이 어머니와 찍은 사진과 어머니의 편지가 부착되어 있고 유아들의 작품도 전시되어 있다. 3층에 올라오면 교실에 들어가는 중간에 세 학급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이 있는데 그 곳에는 다양한 책들과 의자들이 있어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교실 입구에 들어서면 정면과 왼쪽 편이 큰 창으로 되어있어 교실이 전체적으로 밝고 정면에는 피아노와 교사 의자가 있으며 그 옆에 오늘의 일과와 출석판이 있는 화이트보드판이 있다. 교실입구의 오른편과 왼편에는 가방장과 옷걸이가 있고 교실 가운데에는 유아들이 앉아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매트가 있으며 그 주변으로 유아들의 책상과 의자가 있다. 교실 내부에는 흥미영역인 미술영역, 쌓기영역, 수·조작 영역, 언어영역, 도서영역, 음률영역, 과학영역, 역할놀이영역이 구성되어 있으며 영역별 재료 구성은 월별 주제와 생활주제에 따른 교구를 제공하고 있다. 교실의 벽면에는 유아들의 작품과 주제에 맞는 화보와 활동자료가 부착되어 있다.

< 표 1 > 슬기반의 하루 일과

활 동 시 간	활 동 내 용
9:00 ~	등원 및 자유선택놀이
9:40 ~	원장님 말씀과 하루일과계획
10:00 ~	오전간식
10:20 ~	실외활동
11:20 ~	대·소집단활동(이야기나누기, 동화, 동시, 음률, 게임, 신체활동 등)
12:20 ~	점심식사 및 양치
1:00 ~	자유선택놀이
2:00 ~	대·소집단활동(이야기나누기, 동화, 동시, 음률, 게임, 신체활동 등)
2:20 ~	귀가지도

슬기반 유아들은 9시를 전후로 등원이 시작되어 9시 30분 정도에 대부분의 유아들이 등원을 하는 편이다. 도보로 등원하는 유아들은 등원시간이 매일 달라지지만 차량으로 등원하는 유아들의 등원시간은 일정하다. 교실에 들어 온 유아들은 옷과 가방을 정리하고 언어놀이 공책을 교사에게 제출하고 자신의 놀이 계획에 따라 자유선택활동을 한다. 9시 40분에 정리시간을 알리는 노래가 나오면 유아들은 교실 가운데 모여 앉아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원장님 말씀을 듣고 슬기반 교사와 함께 하루 일과를 계획하며 시작한다. 10시에는 오전 간식을 먹고 10시 20분부터는 이야기 나누기, 과학활동, 미술, 동화 등 여러 가지의 대·소집단 활동을 하였다. 또한 만 5세 2학기 취학을 앞둔 시점이어서 그림일기 쓰거나 독후활동과 같은 초등학교 과정과 연계된 수업도 한다. 12시 20분에 점심식사를 하고 양치를 한 후 식사를 일찍 끝낸 유아들은 마무리 못한 활동을 하거나 자유선택놀이를 하게 되는데 다른 학급들과 조율하여 강당의 볼풀장이나 실외놀이터에서 놀이를 하기도 한다. 1시부터 대·중·소집단 활동을 한 후 2시 20분부터 귀가지도가 시작되어 걸어 다니는 유아들은 학부모에게 인계를 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유아들은 순서에 따라 차량 지도 교사에게 인계한다.

3) 교사

만 5세 슬기반의 담임교사는 정교사이다. 정교사는 3년제 대학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8년간 하안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만 5세 학급을 5년간 담당하고 늘 차분하고 온정적인 태도로 유아와 상호작용을 하여 학급분위기를 활기 있게 이끌고 있다. 정교사는 유아들의 갈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유아들에 있어 갈등은 일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불필요한 갈등도 있지만 많은 경우아들에 우 유아들은 갈등 상황을 겪으면서 배우는 것도 많다고 생각하구요. 유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더 잘 배울 수 있거든요.

(정교사 면담. 2014. 10. 12)

정교사는 유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경험이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정교사는 유아들의 놀이 시간에 많이 개입하지 않고 지켜보는 편이며 유아들의 갈등상황에서도 지속적인 관찰 후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입하여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저는 유아들의 놀이뿐만 아니라 갈등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개입만을 하려고 해요. 유아들이 스스로 놀이를 주도해가며 갈등 상황이 되더라도 스스로 문제해결을 해 가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부모님들이 유아들의 역할을 많이 거들어 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유아들의 자립심을 키워주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정교사 면담. 2014. 11. 11)

정교사는 만 5세 유아들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유아들의 갈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4) 유아

만 5세 슬기반 유아들은 총 25명으로 남아 12명, 여아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명을 제외하고는 하안유치원 만 4세 반에서 진급한 유아들이고 1학기를 같이 생활하고 있으며 슬기반 유아들의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2 > 슬기반의 유아들 (2015. 2학기 현재)

남자유아명(가명)	월 령	재원여부	여자유아명(가명)	월 령	재원여부
강진우	74	유	강승아	72	유
김동훈	72	유	김가은	71	무
김승현	71	유	김세린	69	유
박민수	79	유	문하진	73	유
박승준	70	무	박라운	73	유
안창우	78	유	박승빈	79	유
이민재	69	유	방민아	70	유
이승운	69	유	윤보람	71	유
이승호	77	유	이수린	75	무
정희준	75	유	이나래	70	유
채인서	70	무	최승주	76	유
한진욱	79	무	최예서	79	유
			홍이제	71	유

정교사는 슬기반 유아들은 재원생이 많고 1학기도 함께 지냈으므로 유아들이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어 교실 분위기가 안정적인 편이라고 하였다.

슬기반 유아들은 재원생들도 많고 이미 1학기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유아들끼 어떤 놀이를 좋아하고 어떤 유아와 자주 놀이를 하는 지 등 서로에 대해 잘 알아요. 슬기반 여아들은 미술영역 활동을 좋아하는 편이고 남아들은 쌓기영역에서 블록을 가지고 만들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또래관계도 안정적이어서 교실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유아들 간에 큰 갈등이 없이 안정적인 분위기에요. 제가 유아들의 모든 갈등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외면을 당하는 유아도 없이 다들 잘 어울려 지내는 것 같아요.

(정교사 면담. 2014. 11. 11)

이와 같이 정교사는 슬기반의 경우 재원율도 높고 1학기 생활을 하였으므로 유아들 간의 놀이 집단이나 놀이 형태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2. 연구절차 및 자료수집 방법

1) 예비연구

본 연구에 앞서 여아들과 남아들의 갈등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의 방법 및 연구대상의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2015년 8월 25일~26일에 하안유치원의 만 4세 유아들의 하루일과를 참여관찰 하였으며 2015년 8월 28일과 9월 1일에 역시 하안유치원의 만 5세 유아들의 하루 일과를 참여관찰하였다. 본 연구자는 어떤 연령의 학급이 본 연구에 적절한지에 중점을 두어 예비연구를 실시한 결과 자신의 경험, 의견, 생각 등의 추상적인 것들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인지 능력이 더 발달한 만 5세 유아가 갈등 상황을 만 4세 유아에 비해 좀 더 구체적으로 표출하며 갈등해결에도 보다 적극적임을 볼 수 있다. 이에 만 5세 유아들을 연구대상으로

신청하였다. 먼저 유아교육기관의 동의를 얻은 후 만 5세반 교사에게 연구 일정, 연구절차, 연구방법 등이 포함된 연구 계획서를 제출한 후 연구 동의를 구하였으며 교사를 통하여 유아들과 학부모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의 동의를 얻었다. 특히 연구 중에 연구 참여자는 사정에 따라 연구를 중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고지하였다. 또한 자료 수집을 위해 녹음과 동영상촬영을 할 수도 있음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예비연구를 통해 하루일과 시간 중에 유아들의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을 관찰하고 연구 진행상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살펴보았고 참여관찰이나 녹음, 동영상 활용을 통한 자료수집 방법을 익히며 연구 참여자가 관찰하고 있음을 느끼지 않고 유아들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았다.

예비연구에서 유아들의 갈등의 원인에 있어서는 여아들은 역할 결정이나 놀이의 주도권에 의한 갈등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남아들의 경우 놀잇감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많은 것을 관찰하여 여아들과 남아들 간의 갈등의 원인에 성차가 있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유아들의 갈등에 있어 갈등의 원인뿐만 아니라 갈등의 과정이나 해결방법에도 성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연구로 발전시키고자 본 연구를 실행하였다.

또한 수집에 있어서 자유선택활동시간의 갈등만을 관찰하려했으나 유아들은 전 일과시간에 걸쳐 의미 있는 갈등 상황과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예비연구에서 밝혀졌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 일과시간에 걸쳐 실내·외의 모든 장소에서 연구를 실행하였다

2) 본 연구

본 연구는 2005년 10월 12일부터 2015년 12월 23일까지 주 2회씩 총 22회의 참여관찰과 교사와의 비형식적인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관찰은 유아들이 등원하는 시간부터 귀가할 때까지 이루어졌으며 교실에서 뿐만 아니라 슬기반 유아들이 수업을 하는 장소 모두에서 이루어졌다.

하안유치원은 연구자가 근무했었던 곳으로 원장 및 담임교사와 친분이 있는 곳이므로 연구를 진행하기 수월하였으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본 연구자는 담임교사를 도우면서 유아들의 하루일과를 참여관찰하였다. 유아들의 하루일과를 쫓아다니며 관찰하여 갈등의 상황은 즉시 현장에서 기록하였다. 전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문점이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메모하였다가 담임교사와의 비형식적인 면담에서 질문하였다.

(1) 문화 기술적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만 5세 유아의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여아와 남아의 갈등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치원 하루 일과시간 동안 유아들 간에는 크고 작은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유아들 간의 갈등은 사회적·물리적 상황과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Graue & Walsh, 1995) 연구자는 유아들의 갈등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고자 연구 대상자들이 속해 있는 문화와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 집단 구성원의 관점으로 그들의 신념과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는 연구방법인(Spradley, 2006) 문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2) 참여관찰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2015년 10월 12일부터 2015년 12월 23일까지 총 22회의 참여관찰과 비형식적 면담, 오디오녹음, 문서 수집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유아들의 등원시간부터 실내 및 실외놀이, 대·중·소집단활동, 급·간식 시간, 귀가에 이르기까지 일과 전체에서 발생하는 유아들의 갈등 양상을 관찰하였다.

연구자는 유치원의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유아들 간의 갈등에 있어 성별에 따른 양상을 관찰하고자 일과시간 동안 유치원에 함께 머물면서 그들의 삶을 자연스럽게 탐색하고자 했다. 연구자는 참여관찰을 통해 유아의 행동과 언어를 사회적·물리적 맥락 안에서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기술함으로써 해석이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참여관찰 만으로 이해하기 힘들거나 추가적으로 유아들의 특성 파악이 필요로 할 때는 교사와의 비형식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남아와 여아의 갈등 양상과 그 갈등 양상에 나타나는 의미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참여관찰을 통해서 연구자는 유아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맥락 안에서의 갈등을 이해하고 기록하였다. 유아들이 연구자를 의식할 경우 갈등의 양상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자는 현장에 들어가서 유아들과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관찰 시에도 유아들의 갈등 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관찰하며 기록하였다. 본 연구는 유아들 간의 갈등 상황에서 오고 가는 대화와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였으므로 유아들의 가까이에서 관찰을 하며 녹음을 하거나 현장약기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관찰자는 내부자인 동시에 외부자로서 일상적 경험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파악하여 자세히 기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Spradley, 2006). 따라서 매 회마다 관찰내용은 관찰 일지에 구체

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되 관찰시 가졌던 중요한 내용이나 의견, 생각, 느낌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현장 노트에 기재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유아들의 기질이나 이전의 경험 등 갈등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거나 연구자의 이해가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사와의 비형식적인 면담이 수시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물리적 맥락에서 유아들의 갈등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얻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자는 자료 수집과 동시에 자료 분석이 진행되도록 노력하여 관찰 내용은 당일에 현장 노트에 기록하였고 관찰 내용과 연구주제와 연관 있는 해석이나 질문, 의견 등은 관찰자 논평에 첨가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주제와 관련된 문헌 고찰을 병행하였다.

매 회 관찰한 내용을 전사하여 현장 약기한 내용과 같이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유아들의 갈등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고 메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예비 범주 목록을 만들었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갈등의 원인, 양상, 결과라는 범주 목록으로 점차 세분화하면서 상위범주에 따른 하위범주를 구성해나갔다. 이러한 갈등의 단계를 중심으로 여아와 남아와 관련된 요소들을 발견해 나가면서 기록하며 다시 데이터를 해독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갈등과정에서 나타나는 남아와 여아의 특징을 발견하여 범주화하였다. 이를 지지할 만한 사례들을 추출해내는 과정을 거치고 다시 사례들을 읽어가며 불필요한 사례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거쳤다.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우선 참여관찰, 면담, 문서수집 등의 다양한 자료수집방법을 사용하여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유아교육 전공자의 검토를 받고 지도교수의 조언과 지도를 받아 자료를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정확성을 기하고자 했으며 마지막으로 정교사와 함께 수집한 자료에 대한 분석 내용을 검토하고 해석을 들음으로써 연구자의 해석에 왜곡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구성원 검토 과정을 거쳐 연구 결과를 보완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만 5세 유아들의 유치원 일과시간에 나타나는 여아와 남아의 또래간 갈등의 원인, 양상, 결과를 알아보고 성차의 의미를 탐구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슬기반 유아들의 유치원 일과시간 활동에서 여아와 남아의 갈등의 원인은 어떻게 다른지, 갈등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는지, 또한 그러한 갈등의 해결방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하였다.

1. 여아와 남아의 또래 간 갈등의 원인

유아들은 유치원이라는 사회에서 또래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양한 갈등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즉 유아들은 아직 사회적 기술의 발달 과정에 있으므로 등원하면서 하원 하는 시간까지의 유치원 일과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게 된다. 갈등의 원인으로는 역할놀이에서 역할을 차지하려하거나 놀이를 주도하려고 하는 주도권으로 인한 경우, 물건이나 공간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소유권 다툼의 경우, 규칙을 위반하거나 규칙을 어긴 것을 지적하므로써 갈등이 생기는 경우, 단순한 장난이나 놀이를 방해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여아와 남아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 주도권 드러내기 vs 소유권 주장하기

- 주도권 드러내기

슬기반 여아들은 남아들에 비해 주도권을 잡고 드러내려고 하는데서 갈등이 많이 발생하였다. 놀이에서 역할에 대한 갈등이 많이 일어났는데 특히 역할을 결정하거나 순서를 정하는데 있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역할놀이에서 선호하는 특정 역할을 정하는데 있어 몇몇 여아가 주도권을 가지고 역할을 정해주거나 순서를 정해주려는 경향이 강해서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유아와는 갈등이 일어나고 놀이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물건을 나누어주거나 규칙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특정 여아가 주도적으로 놀이를 이끌어 가고자하여 갈등을 야기하였다.

(여아 4명에서 역할영역에서)

승아 : 내가 누구 스티커 줄까?

가은, 세린, 하진 : (저마다 손을 들며) 나 나 나

승아 : 가위바위보 해봐.

가은, 세린, 하진 : 가위바위보.

가은 : 내가 이겼다.

승아 : 여기.

가은 : 와 고마워.

세린 : 나두 갖고 싶은데 나두 주라.

승아 : 잠깐 기다려, 가지고 올게.

승아 : (세린, 하진에게) 니네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 줄게.

가위바위보.

하진 : 내가 이겼어.

승아 : 너 늦게 냈잖아. 다시 해. 가위바위보.

(하진이가 또 이겼다.)

승아 : 너 또 늦게 냈잖아. 다시 가위바위보.

(하진이가 또 이겼다)

승아 : 너 왜 자꾸 늦게 내. 다시 해봐. 가위바위보.

(3번 연속 세린리와 하진이가 같은 것을 내자)

승아 : (하진이에게) 넌 가위를 내구 (세린이에게) 넌 니가 내고 싶은 거 내
가위바위보.

세린 : (주먹을 내서) 내가 이겼다. 스티커 줘

승아 : 여기 가져.

가은 : 야 하진이한테 가위 내라고 하면 당연히 세린이가 이기지.

(2015. 8. 24 관찰)

위의 사례에서 승아는 집에서 가져온 스티커를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과정에서 유아들에게 가위바위보를 시켜서 나누어주었다. 이 과정에서 승아는 하진이 대신 세린리에게 먼저 스티커를 주기 위해서 여러 번 가위바위보를 시키고 끝내 가위를 내라고 하면서까지 세린리를 이기게 하여 세린리에게 먼저 스티커를 주었다. 승아는 자신이 가지고 온 스티커를 자신의 의도대로 유아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억지를 부려 자신의 의지대로 함으로써 다른 유아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다. 세린리의 경우 인지발달이나 언어발달이 좀 빠르고 미술활동도 잘하는 편이며 기질적으로 강한 편이어서 다른 유아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고 다른 유아와 의견의 대립이 생기게 되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정교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정교사 : 하진이가 집에 가서 하진이 엄마에게 승아가 항상 자기마음대로 한다고 속상해 했다고 엄마가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평상시에도 승아가 성향이 강하고 놀이에서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해서 이런 갈등이 종종 생기고는 해요.

(2015. 8. 26 교사면담)

하진이가 집에서 어머니에게 승아는 항상 자기마음대로 한다며 속상해하자 어머니가 정교사에게 전화를 했다. 정교사는 어머니에게 승아의 성향에 대해 알리고 유아들과 대화를 해보겠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정교사는 몇몇 유아들의 이러한 성향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했다. 또한 놀이 중에 소집단에서 일어나는 유아들의 이러한 갈등은 겉으로 잘 나타나지 않아 교사가 인지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했다.

(미술영역)

진우 : (교사가 준 활동지에 그림 그리고 있는데)

창우 : 나랑 놀자.

진우 : 이거 그려야 해.

창우 : 그만 그려두 되잖아.

진우 : 더 그릴거야.

창우 : 많이 그린다고 좋은 거 아니잖아.

진우 : 많이 그리면 좋지.

창우 : 많이 그리면 팔도 아프고 안 좋아.

세린 : 니것두 아닌데 신경 쓰지 마.

진우 : 신경 쓰는 거 아니라 그냥 보는 거야.

세린 : 넌 그릴 거 아니면 저리가.

진우 :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는 거야. 니거 보는 것두 아닌데 니가 왜
그래?

창우 : 나 그리는 거 보지 마. 나 더 그릴거야.

세린 : 넌 신경 좀 그만 쓰고 그릴 거 아니면 가.

창우 : 서서 보기만 하는 거라니까. 넌 상관하지 마.

세린 : 지금 우리 그림 그리고 있는데 너 때문에 방해되잖아.

우리 거 보지 말구 저쪽으로 가란 말이야.

창우 다 그리고 놀면 되잖아.

(2015. 12. 15 관찰)

위의 사례에서는 유아들이 전 활동시간에 완성하지 못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진우는 이미 그림을 다 그리고 창우와 놀고 싶어서 창우에게 와서 그림을 그만 그리라고 하지만 창우는 그림을 계속 그리겠다고 하여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세린이는 직접적으로 이 갈등과 관련이 없었지만 같은 영역에 있었으므로 개입을 하여 상황을 정리하려고 한다. 진우는 갈등에 개입한 세린이 못마땅하여 세린과 언쟁을 벌이면서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었지만 세린이는 진우에게 이유를 대면서 갈등을 해결하려 했다. 비록 세린이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갈등 상황은 아니었지만 세린이는 상황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려 하였고 그러한 점이 다시 갈등을 유발하였고 결국은 세린이의 주도에 의해 갈등이 종결되었다. 여아들의 주도권은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기도 했다.

(도서영역)

승호 : 나 그 책 읽을래.

라운 : 다 안 읽었어.

승호 : 너 다 읽었잖아.

라은 : (승호에게) 너가 세 번째야. 애가 1번 재가 2번

승호 : 선생님 저 책 읽고 싶은데 라은이가 안 줘요.

교사 : 그 책 읽고 싶음 라은이한테 그 책 다 읽음 달라고 얘기해.

승호 : 너 다 읽음 나 줘.

라은 : (승호에게) 너가 첫 번째고 승빈이가 두 번째, 나래가 세 번째야.

승빈 : 내가 첫 번째였잖아.

라은 : 너가 읽고 싶음 기다려.

(2015. 10. 30 관찰)

라은이가 가지고 있는 책을 다른 유아들이 책을 달라고 하자 친구들을 지정하여 순서대로 주겠다고 한다. 그리고는 책을 다 읽었는데도 마음대로 순번을 자꾸 바꾸기만 하고 건네주지 않자 다른 유아들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갈등이 발생하였다. 라은이에게 있어 책은 권력수단이 되었고 이러한 수단을 가지고 친구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제재하고자 하는 주도권을 행사한 것이다.

(역할영역)

이제 : 막내 할 사람?

보람 : 나

이제 : 그럼 가위바위보해.

민아, 가은, 보람 : 가위바위보.

보람 : (이긴다) 내가 막내다.

민아 : 진 사람이 하는 거야.

(이제를 보고) 그지?

이제 : 맞아.

민아 : 그럼 난 첫째, 넌 둘째, 넌 셋째, 넌 막내(이름도 다 정해준다)

보람 : 그런 게 어딴어?

그럼 처음에 얘기했어야지.

(2016. 8. 24 관찰)

위의 사례는 역할영역에서 여아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갈등의 양상이다. 보람이는 가위바위보에 이겼음에도 민아가 갑자기 규칙을 바꾸므로 막내를 하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됨으로써 갈등이 발생하였다. 여아들은 역할영역에서 역할을 맡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데 위의 사례와 같이 한 유아는 주도적으로 다른 유아들의 역할에 관여함으로써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유아의 주도권으로 갈등이 해결되기도 하는 양면성이 있었다. 요컨대 이러한 놀이의 주도권이나 역할 결정에 대한 주도권의 싸움이 슬기반 여아들이 갈등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이었다.

- 소유권 주장하기

슬기반 남아들은 누가 먼저 놀잇감을 잡고 먼저 놀이를 시작하는지, 누가 먼저 놀이 공간을 차지하였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남아들의 이러한 성향은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쌓기영역)

인서 : (수린에게 조립되어 있는 것 중의 블록 하나를 가리키며)

너 이거 필요해?

수린 : 응.

인서 : 나 이거 꼭 필요한데 나 주라.

수린 : 나두 필요한데.

인서 : 너 이거 없어두 되지? 난 그거 없음 이거 못 만들어. 이거 봐 여기에다 해야 되.

수린 : (블록을 빼며) 여기

인서 : 고마워.

승운 : (인서에게 그 블록을 빼앗아 수린에게 건내며) 너 필요한 거잖아. 애 주지마.

인서 : 수린이가 준건데 니가 왜 그래?

승운 : 이거 수린이가 필요한 거란 말이야. 이걸루 이거 만들었잖아.

인서 : (수린에게 도로 블록을 가져가며) 이거 애가 준거란 말이야.

승운 : (수린에게) 이거 너가 만들었던 거잖아. 애 왜 줘?

(2015. 8. 25 관찰)

인서는 필요한 블록을 수린에게 달라고 하여 갖게 되었으나 승운이는 그 블록이 원래 수린이가 갖고 있던 것이며 수린도 필요한 것이므로 인서에게 빼앗아 수린에게 돌려준다. 승운이는 그 블록을 먼저 사용하고 있던 수린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여겼으므로 비록 수린이가 인서에게 양보를 하였을지라도 먼저 소유한 수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슬기반 남아들의 소유권에 대한 갈등은 주로 쌓기영역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블록을 가지고 공유하면서 활동을 하다 보니 블록이나 공간의 소유문제로 크고 작은 갈등이 자주 발생하였다.

(쌓기영역)

창우: (진욱이가 쓰는 작은 블록 가져온다)

진욱: 안돼, 내가 쓰는 거야.

창우: (진욱이가 다른 거 하는데 가져옴)

진욱: (교사에게 얘기함)

교사: 창우가 진욱이에게 돌려주세요. 말도 안하고 가져오면 안되지요.

창우: (선뜻 찾아서 진욱이에게 돌려줌) 이따가 다 쓰면 나 주라.

진욱: 싫어, 계속 쓸건데.

(2015. 11. 11 관찰)

창우는 진욱이가 블록을 먼저 쓰고 있는데도 자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가져오게 되지만 교사의 제재로 다시 진욱이에게 돌려주게 된다. 창우는 그 블록을 진욱이가 먼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져와서 갈등이 일어났고 결국 다시 돌려주어서 갈등은 해결되었지만 진욱이는 나중에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우선적 소유권을 주장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창우도 블록의 우선적 소유권이 진욱이에게 있으므로 자신이 행동이 갈등의 원인 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블록을 가져온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의 말에 금방 수긍하며 진욱이에게 순순히 블록을 내어주며 다 쓰면 달라고 하였던 것이다.

(교실에서)

희준 : (책상이 옆으로 옮겨지자 자리가 헛갈려 민재에게)

야, 여기 내 자리야.

민재 : 그럼 난 어디 앉으라고

희준 : 몰라, 여기 내 자리야.

민재 : (옆으로 가려하자)

동훈 : 좁아. 여기 내 자리야.

민재 : 아까 내 자리였는데

동훈 : 내 자리라니까

가은 : (희준에게) 여기가 니 자리잖아.

희준 : 그렇네.

(2016. 11. 20 관찰)

(교실에서)

승현 : (책상 민다.)

민재 : (카드 정리 중 책상이 밀려오자) 밀지 마 .

승현 : (책상줄) 이거 맞춰야 해.

여기까지가 우리 자리란 말이야.

민재 : (신경질 내며)지금 하지 말라니까.

우리 정리 중이잖아.

승현 : (끝까지 밀어 줄 맞추어놓고) 여기가 우리가 놀던 데란 말이야.

민재 : 그럼 잠깐만 기다려. 우리 정리 끝나고 밀어.

(2016. 10. 28 관찰)

위의 두 사례 모두 슬기반 남아들이 자신의 영역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일어난 분쟁이지만 첫 번째 사례에서 희준이가 자신의 자리가 헛갈려서 자신의 자리가 아님에도 자신의 영역이라고 주장을 하여 갈등이 일어났다. 의도적으로 다른 유아의 공간을 차지하려고 해서 일어난 갈등은 아니었지만 공간의 소유권 주장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두 번째 사례는 승현이가 자신의 놀이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친구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영역 소유권을 주장하여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슬기반 남아들은 자신의 놀잇감이나 영역에 대한 소유권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규칙위반 지적하기 vs 놀이방해하기

- 규칙위반 지적하기

슬기반 여아들은 남아들에 비하여 놀이의 규칙, 일상적인 유치원 교실에서의 규칙이나 약속이 위반되는 상황에 대해 민감하여 지적을 함으로써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교실에서 정해진 규칙이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친구가 있을 때 그 규칙을 집요하게 지킬 것을 고집하는 것이 갈등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미술영역)

이제: 나래 너 니 자리 정리 안했어.

나래: 정리 했는데

이제: 정리 안 됐어. 와서 정리해.

나래: 정리 했더니까.(자리에 앉아서 독서)

이제: 선생님 나래가 정리 안했는데 했다고 해요.

교사: 나래는 와서 정리하세요.

나래: 네 (와서 정리한다)

(2015. 11. 11 관찰)

나래는 나름의 정리를 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제는 제대로 정리가 안 되었다며 나래를 다시 불러서 뒷정리를 하라고 한다. 나래가 이미 정리했다고 했음에도 이제는 교사에게 도움을 청해서까지 나래로 하여금 다시 정리를 마무리하게 한다. 위의 사례와 같이 활동을 한 후에는 정리를 해야 한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여 약속을 이행하도록 고집

하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손 씻으러 줄서서)

승주: 선생님이 바닥나라 친구들만 나오라고 했어.

예서: 아니야. 의자나라도 나오라고 했어.

승주: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선생님 의자나라 나와요?

교사: 아니 바닥나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승주: 거봐 내말이 맞잖아.

(2015. 11. 11 관찰)

위의 사례에서는 슬기반 유아들은 교사가 정한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승주는 예서가 교사가 얘기한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갈등이 일어났다. 예서는 자신이 규칙을 어긴 것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승주와 갈등을 빚게 되었다. 이와 같이 유치원이라는 작은 사회에서 의견의 대립이나 상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이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교실에서)

(가위바위보 게임 - 이긴 사람은 이긴 사람끼리, 진 사람은 진 사람끼리)

여5명 : 가위바위보

하진 : 이렇게 하자 (둘 셋을 가른다).

가위바위보

수린 : (라은이에게) 너 늦게 냈잖아.

라은 : 나 제대로 냈거든. 너가 낼 때 나도 냈어.

하진 : 그럼 다시 해. 가위바위보

.....

수린 : (라은이에게) 너 왜 내면서 바꿔?

라은 : 바꾼 거 아니거든. 니가 가위 낼 때 나도 낸 거야.

수린 : 너 바꿔 내는 거 내가 봤거든.

승주 : 이러다 싸우겠다. 다시 하자.

가은 : (옆에서 구경하다가) 라은아 너는 왜 계속 늦게 내냐?

라은 : 너는 같이 안 하는데 왜 그래? 나 늦게 내지 않았거든.

수린 : (라은이에게) 너는 계속 늦게 내거나 바꾸잖아.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

라은 : 나 그러지 않았거든. 나 그만 할래.

승주 : 우리 다른 거 하자.

(2016. 12. 21 관찰)

위의 사례에서는 라은이가 계속적으로 가위바위보의 규칙을 지키지 않아 갈등이 일어났다. 다른 친구들은 라은이의 규칙을 어기는 행동으로 인해 게임이 진행되지 못하자 원망을 나타내면서 갈등이 일어났지만 라은이 가위바위보에서 이기고자 하는 욕심이 앞서 가위바위보 규칙을 자꾸 어기게 되었다. 이러한 규칙위반으로 인한 갈등이 승부를 중요하게 여기는 남아들에게서도 종종 일어나기는 했으나 여아들의 경우는 이러한 게임에서의 규칙위반에서보다는 일상적인 유치원 생활 전반에 걸친 규칙위반에 대한 갈등의 빈도가 훨씬 높았다. 이와 같이 슬기반 여아들의 갈등은 규칙위반 자체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칙위반을 지적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 놀이방해하기

놀이를 하다보면 놀이를 방해하는 유아들이 있기 마련인데 유독 슬기반 남아들은 여아들에 비해 놀이를 방해하여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같이 놀이를 하고 싶어 방해하는 경우나 놀이에 참여시켜주지 않아 놀이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경우 단순한 재미와 흥미 때문에 놀이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반응에 재미를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도서영역)

민아와 보람이가 책을 같이 읽고 있는데

동훈 : 같이 읽자(여자 친구들의 반응이 없자 자리 옮겨서) 같이 읽자.

진우 : (멀리서 보다 와서) 같이 읽자.

민아 : 싫어. 우리끼리 읽을 거야.

진우 : (민아의 머리 슬쩍 잡아당김)

민아 : (손 치우며) 하지 마.

진우 : (묶인 머리 잡아당기고) 나도 하고 싶어.

민아 : 저리 가서 읽어.

동훈 : (민아와 보람이가 책을 다 읽은 듯 들고 있자 보람이의 손에 있는

책을 빼앗아 간다)

민아 : (다시 뺏으며) 말도 안하고 왜 가져가?

동훈 : 너희 다 읽었잖아.

민아 : 아니야. 아직 읽고 있어.

(2015. 12. 2 관찰)

첫 번째 사례의 경우 동훈이와 진우가 민아와 보람이가 책을 읽고 있는데

와서 같이 읽고자 했으나 민아와 보람이에게 거절당하자 머리를 잡아당기고 책을 빼앗으며 놀이를 방해하게 되어 갈등을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우 민아와 보람이가 함께 책을 읽는 것이 재미있어 보여 동훈과 진우는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만 민아와 보람이 입장에서는 오히려 놀이를 방해하여서 갈등 원인을 제공한 친구가 된 것이다.

(교실에서)

승현 : (실뜨기 줄을 가지고 논다.)

민수 : 나 주라.

승현 : 나 하잖아.

민수 : (잡아당기며) 나 주라.

승현 : 잡아당기지마.

민수 : 나 주라, 야~

승현 : 내가 할 거야.

민수 : 나두 하고 싶단 말이야.

승현 : 승아한테 달라 그래. 개 집에 많대.

(2015. 12. 15 관찰)

위의 사례에서 민수는 승현이가 놀고 있는 실뜨기 줄을 잡아당기자 승현이가 보여주는 반응이 재미있기도 하고 민수도 실뜨기 놀이가 하고 싶어서 계속적으로 잡아당기면서 놀이를 방해하였다. 민수는 이러한 행동이 승현이가 싫어하는 행동이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단순한 재미로 이러한 놀이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였다.

(도서영역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유아들이 도서영역에서 책을 읽고 있다.)

진욱 : (다른 친구들 책 읽고 있는데 노래 부르자 승준이와 민수도 따라 부른다.)

라운 : 시끄러워. 책 읽잖아.

남아들 : (계속 노래를 부른다.)

승빈 : (귀를 막으며) 책 읽는 곳에서 노래를 부르면 어떡해?

남아들 : (계속해서 노래를 부른다.)

승빈 : (책을 들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

(2016. 11. 4 관찰)

위의 사례에서도 슬기반 남아들은 재미를 위해서 책을 읽고 있는 여아들을 방해하여서 갈등이 일어났다. 슬기반 남아들이 의도하지 않게 놀이를 방해하게 되어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으나 재미있어서나 심술이 나서 놀이를 방해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같이 놀고 싶다는 의사표현으로 놀이를 방해하여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혹은 남아들이 여아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놀이를 방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슬기반 여아들의 경우 놀이나 역할 결정에 관한 주도권 다툼과 규칙위반에 대한 지적을 하여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슬기반 남아들의 경우는 놀잇감이나 영역에 대한 소유권 다툼과 놀이를 방해함으로써 갈등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여아와 남아의 또래 간 갈등의 전개 양상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유아들은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다(Shantz, 1987). 유아들은 갈등상황에서 고집 부리기, 협박, 이유 말하기 등과 같은 언어적인 방법과 밀치기, 던지기, 때리기와 같은 신체적 공격인 비언어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집단을 만들어서 언쟁을 벌이기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갈등을 전개시킨다. 이와 같이 갈등 상황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어지는데 여아들과 남아들의 갈등 전개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말로 하기 vs 몸으로 하기

- 말로 하기

슬기반 여아들은 남아들에 비해 갈등상황에서 언어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아들은 주로 언어 즉 말을 통해서 공격을 하거나 회유를 하여 갈등을 전개시킨 것을 볼 수 있었다. 만 5세인 슬기반 유아들은 언어적 발달이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연령이므로 갈등 상황이 언어를 통하여 전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교실에서)

승운 : (울먹이며 교사에게) 애가 나 주기로 하고는 민아한테 줬어요.

교사 : (수린에게) 왜 승운이한테 안주고 민아한테 줬어요?

수린 : 민아가 책 안주면 나랑 친구 안한다고 했어요.

교사 : (민아에게) 진짜 그런 말 했어요?

민아 : ...

교사 : 그런 말을 하면 안돼요. 친구 안한다는 말은 친구끼리 해서는 안되는 말이잖아. 우선 승윤이에게 사과해요.

민아 : (승윤이에게) 미안해. (운다)

(2015. 8. 24 관찰)

위의 사례에서 수린이는 승윤이에게 책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민아가 책을 자신에게 먼저 달라고 하면서 주지 않으면 친구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는 겁이 나서 승윤이와의 약속을 어기고 민아에게 책을 주었다. 슬기반 유아들은 신체적 공격 등으로 갈등을 풀어가기 보다는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 전달하거나 주장을 하는 상황이 많았다.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민아는 책을 먼저 갖고 싶은 마음 때문에 수린이에게 안주면 친구를 하지 않겠다는 협박을 해서 책을 얻게 되었다. 만 5세 유아들에게 또래관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친구를 하지 않겠다는 말에 겁을 먹은 수린이는 민아의 의견을 따르게 된 것이다.

(미술영역)

나래 : 나 먼저 그려주라.

승주 : 나 먼저.

하진 : 그럼 너희 가위바위보.

(여~ 가위바위보)

하진 : (승주에게) 너부터 그려줄게.

승주 : 그래.

나래 : 그럼 나는?

하진 : (나래에게) 대신 넌 예쁜 색 칠해줄게.

나래 : (하진이에게) 싫어. 니가 빨리 그려줘.

승빈 : 지수가 손 아프니까 내가 그려줄게.

나래 : 흥.

하진 : 내가 어제 그려줬잖아.

나래 : 흥 미워.

(2015. 10. 16 관찰)

나래는 하진이가 그림을 잘 그리므로 하진이가 그려주기를 원했지만 하진이는 승빈이와 승주에게 가위바위보를 하게 하여서 승주를 먼저 그려주기로 했다. 나래는 하진이가 예쁜 색을 칠해 준다 해도 불만이었고 승빈이가 하진이 대신 그려준다는 데도 토라졌다. 나래는 하진이가 승주에게 먼저 그림을 그려주는 대신 나래에게는 더 예쁜 색을 칠해주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계속적으로 고집을 부리며 갈등이 심화되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슬기반 여아들은 남아들과 같이 물리적 충돌이 있거나 큰 소리를 내며 싸우지는 않았지만 갈등상황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요구만을 일관되게 고집을 부리면서 갈등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자 : 이 여자유아들은 제가 관찰하는 날마다 아침 자유선택 시간에는 미술영역에서 이와 비슷한 갈등을 하면서 미술활동을 하는데 다른 날에도 그런가요?

교사 : 이 유아들은 아침에 주로 일찍 오는 경우가 많고 그리기를 좋아하는 유아들이라 아침에 시간에는 미술영역에서 활동을 많이 해요.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저런 작은 갈등들이 있기는 한데 놀이에 크게 지장을 주기 않는 것 같아 지켜보고 있어요.

(2015. 11. 11 교사면담)

위 사례의 슬기반 여아들은 아침에 일찍 등원을 하는 편이어서 항상 미술 영역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서로 그려주기도 하면서 놀이를 하는데 위와 같은 갈등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오늘은 누구 그려주고, 무슨 색으로 칠해주고 등 갈등 상황을 언어로 표현하였다. 교사는 이러한 언어로 표현하는 갈등 상황이 자주 일어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지만 큰 갈등이 되지는 않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강당에서)

예서 : 너 손 이렇게 해야 해.

가은 : 나 맞게 했어.

예서 : 조금 더 옆으로 가면서 해야지.

가은 : 니가 선생님도 아니잖아.

라운 : 니들 떠들지마.

예서 : 니가 자꾸 틀려서 계속 연습하잖아.

가은 : 알았다구. 잘하면 되잖아 .

(2015. 12. 11 관찰)

슬기반 여아들이 부채춤을 연습하는데 가은이의 동작이 틀리자 예서가 지적을 하며 맞는 동작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준다. 이에 가은이는 기분이 상하여 토라진다. 가은이는 자신이 동작이 틀렸다는 알게 되었지만 예서가 친구들과 앞에서 선생님같이 지적을 하며 가르쳐 주는 것이 기분이 상했던 것이다. 이러한 친구의 지적은 신체적 아픔을 동반하는 공격은 아니지만 가은이에게는 창피를 주는 언어적 공격이 되었던 것이다.

교사 : 부채춤 연습을 하는데 가은이가 다른 유아들보다 습득이 늦어 자주 틀리는

데다가 등원시간이 늦어서 가은이가 온 다음에 다시 연습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가은이가 동작이 틀리면 다른 친구들이 감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2015. 12. 11 교사면담)

정교사는 교사 자신이 가은이가 동작이 틀린 것을 자주 지적하다보니 유아들 사이에서 이러한 갈등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고 하였다.

슬기반 여아들은 위의 사례들처럼 언어로서 대화도 하고 공격도 하면서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하고 해결해나가기도 했다.

- 몸으로 하기

남아들은 기질적으로 활동적이고 신체활동을 활발히 하므로 여아들에 비해 적극적이며 활동적인 놀이를 많이 한다. 또한 남아들은 여아들에 비해 말보다는 몸이 먼저 대응하게 되면서 거칠고 신체적 접촉을 많이 하는 등의 신체적 공격성을 많이 보였다. 슬기반 남아들은 갈등 과정에서 감정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신체적 공격을 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놀이의 일환으로서 재미를 위해서 신체적 공격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쌓기 영역)

(이제가 블록을 정리한다.)

민재 : 넌 놀지도 않았는데 왜 정리해?

이제 : 그냥 하고 싶어서.

민재 : (블록을 뺏으며) 넌 하지마. 안 놀았잖아.

이제 : (계속 블록을 정리한다.)

민재 : (블록을 이제에게 던지며) 하지 말라니까.

이제 : 그냥 정리하는 거야.

민재 : 선생님 애 놀지도 않았는데 정리해요.

교사 : 친구가 도와주면 정리가 더 빨리 끝나서 좋지 않을까?

(2015. 8. 26 관찰)

위의 사례에서 민재는 이제가 블록을 가지고 놀지 않았는데도 정리를 한다고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이제가 계속 정리를 하자 이제가 들고 있는 블록을 뺏으며 던진다. 민재는 말로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제가 자신의 의견을 수용해 주지 않자 감정적으로 블록을 빼앗아 던지는 신체적 공격을 가하였다. 이렇듯 슬기반 남아들의 경우 의도적으로 신체적 공격을 하기 보다는 자신의 언어로는 더 이상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신체적 공격을 하였다. 이러한 신체적 공격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평상시에는 인지하고 있음에도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바깥놀이에서)

승호 : (기둥 잡고 있는데)

인서 : (승호에게 와서 같이 기둥 잡음)

승호 : (다른 기둥으로 가고)

인서 : (승호를 다시 쫓아가서 몸으로 밀어낸다.)

승호 : (안 밀린다.)

인서 : (계속 민다.)

승호 : (다른 기둥으로 간다.)

인서 : (다시 쫓아간다.)

승호 : (다른 곳으로 뛰어간다.)

인서 : (쫓아가서 계속 몸으로 밀며) 나 힘세다.

승호 : 너 왜 나 쫓아다니면서 그래?

인서 : 나 힘세지?

승호 : 쫓아 오지 마 (다른 친구 무리로 간다.)

인서 : (승호를 계속 쫓아가면서 대화하다가는 밀면서 힘쓴다.)

(2015. 10. 30 관찰)

(바깥놀이에서)

(남아들 훌라후프로 동동대문 놀이)

순서대로 들어가다가 꼭 한명씩 반대로 가서 부딪힌다.

넘어져도 재미있다고 (한 명은 멀리 부딪혀서 운다) 계속 그렇게 하며 재미있다고 한다.

(2015. 10. 28 관찰)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슬기반 남아들은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신체적 접촉과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별한 갈등의 원인 없이 갈등 상황 자체를 즐기면서 갈등을 유발하고 전개해가는 남아들이 있었다. 몸으로 밀고 부딪히면서 상대 친구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즐기면서 계속적으로 갈등 상황을 전개해나가는 모습이었다. 슬기반 남아들이 몸으로 하는 갈등을 즐김에도 불구하고 여아들을 상대로는 이러한 갈등을 즐기는 모습은 보기 힘들었고 주로 남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슬기반 남아들은 여아들이 이러한 놀이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였다.

2) 갈등 상황에서의 편먹기 vs 홀로 갈등 상황 직면하기

- 갈등 상황에서의 편먹기

슬기반 여아들은 단짝 친구와 같은 또래 관계를 중요시하여 놀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갈등 상황에서도 친한 친구와 같이 집단을 만들어서 갈등 상황을 전개해 나가고 다른 친구를 소외시킴으로써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교실에서)

여아 세 명이서 서로 그림을 주고받으며 속닥거리고 있다. 보람이가 와서 같이 놀자하지만 세 명의 여아들은 보람이의 말을 무시한 채 자기들끼리 여전히 속닥속닥거리린다. 보람이가 토라져서 다른 영역으로 가서 다른 여아 2명에 가서 귓속말로 '재들이 우리 그림 안주고 안노니까 너희들도 재네들이랑 놀지마' 라고 한다. 말을 듣고 있던 여아 2명이 저 쪽의 여아 3명을 쳐다보다 고개를 끄덕인다.

(2015. 12. 4 관찰)

보람이는 그림을 주고받으며 놀고 있는 여아 두 명과 같이 놀이를 하고 싶어서 같이 놀자고 했으나 이 유아들이 받아들여주지 않는다. 이에 다른 유아들에게 가서 그들이 자신을 속상하게 한 것을 얘기하며 속상하게 한 유아들과 놀지 말라고 했다. 보람이는 자신이 소외당해서 속상했던 마음을 다른 친구들이 들어주고 자신과 같은 편을 들어 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비록 이런 식으로 편을 만들어 갈등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편을 만드는 것이 여아들에게는 심리적 안정을 주었다.

(쌓기영역)

승빈 : 무너지면 지는 거야.

예서 : (윗부분이 무너지자 손으로 막으면서) 이걸 조금 무너진 거니까
안 진거야.

나래 : 같이 놀자 승빈아.

승빈 : 우리 이거하고 있어.

이거 돌밖에 못해.

나래 : 셋이서도 할 수 있어.

승빈 : 아니야. 이걸 둘이서만 할 수 있어.

(예서를 보며) 그치?

(2015. 10. 19 관찰)

승빈이와 예서가 나무 쌓기 게임을 하고 있는데 나래가 같이 하고 싶어
했으나 승빈이가 안 된다고 배제시킨다. 승빈이는 이 놀이가 세 명이 되어
도 같이 할 수 있지만 예서와 같이 게임을 하는 게 좋았고 재미있었으므로
나래에게 끼워 줄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승빈이와 예서는 슬기반에서도
유독 친한 친구 사이이므로 둘이 놀이를 즐겁게 하고 있는데 나래를 끼워주
기 싫어서 거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교사는 위의 사례의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하였다.

나래가 저에게 와서 승빈이와 예서와 같이 놀고 싶는데 끼워주지 않아 속상
하다고 얘기했어요. 교사입장에서는 교육적인 면을 고려하여 승빈이와 예서
에게도 같이 놀라고 얘기하고 다른 유아들에게도 다 같이 사이좋게 놀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아들의 경우 만 5세만 되어도 단짝 친구를 중요하게 여기
는 유아들이 많아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여아들은 단짝 친구하고만

놀거나 무리를 지어서 다른 유아들을 소외시키기도 하는 일이 종종 있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해요.

(2015. 12. 23 교사면담)

정교사는 여아들의 경우 편을 만들어 놀다가 다른 유아들을 소외시키고 편을 만들어 갈등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여아들은 또래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신과 잘 맞는 친구가 생기면 그 친구와 많은 것을 공유하며 관계를 맺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친구들과는 갈등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여아들은 ‘같은 피아노 학원에 다니는 친구’, ‘같은 동네 사는 친구’ 등 특별한 관계를 중요시 하므로 이와 같이 편을 만들어서 하는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홀로 갈등 상황 직면하기

슬기반 남아들은 여아들과는 다르게 현재의 상황과 당면한 갈등의 해결이 중요하므로 갈등 상황에서도 ‘누구와 함께’가 아니라 ‘어떻게’에 초점을 맞추어 갈등 상황을 전개하였다.

(쌓기영역)

(블럭으로 비행기를 만들어 진욱이에게 부딪히며 공격을 한다.)

희준 : 썩 ~ 팍!

진욱 : (희준이가 공격하는 비행기를 피하며) 하지 마. 같이 편끼리 왜 그래?

희준 : (다시 성진이 비행기를 치면서) 같은 편 아니라니까 .

진욱 : 야~ 우리 같은 편이잖아.

희준 : 각자 편해서 싸우자.

난 그게 더 재밌어.

(2015. 10. 19 관찰)

(조작영역)

(진우와 민수가 조작영역에서 만들기 하는데 진우가 와서 민수에게)

진우 : (민수에게) 내가 도와줄게.

민수 : 괜찮아. 내가 할 거야.

진우 : (핑귄하나 꺾으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민수 : (작품을 옆으로 치우며) 내가 한다니까.

진우 : 인서 거랑 합치면 더 좋을 텐데.

민수 : 싫어. 그냥 내가 혼자 할 거야.

진우 : (옆에서 지켜보다 인서가 놓고 가니까 인서가 하던 것을 들고)

이거 나랑 같이 하자.

민수 : 난 그만 할 거야.

(2016. 12. 2 관찰)

(쌓기영역)

(세린이와 승아가 블록으로 만들어 놓은 집에 승호와 동훈이가 와서)

승호 : (블록을 던지며) 공격!

동훈 : 로봇 변신!

승호 : 합체 완료~ (블록으로 여자 성 공격)

동훈 : 날아간다. 광!

세린 : 이거 우리가 놀려고 만든 건데 니네들은 저기 가서 하는 거 어때?

니네 때문에 우리 거 부서지잖아.

(남아들은 못 들었는지 계속 성을 공격한다.)

(남아들의 계속된 공격에 성이 부서진다.)

세린 : 우리 거 다 부서지잖아. 저쪽으로 가서 놀아 니들은

동훈 : 니 거 내거가 어딴어. 그냥 노는 거지.

우리 같이 공격하면서 놀자. 부서지면 또 만들면 되지.

(2015. 11. 4 관찰)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슬기반 남아들은 블록을 가지고 놀이를 하면서 각자의 갈등상황에 충실한 듯 보였다. 슬기반 여아들의 경우는 ‘우리 것’, ‘우리가 만든 것’이라는 ‘우리’에 큰 의미를 부여를 하였으나 슬기반 남아들은 같은 공간에서 각자 노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여아들의 ‘우리’란 말은 남아들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슬기반 남아들은 갈등 상황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누구와’ 같이 보다는 당면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은밀하게 다투기 vs 감정 표출하여 다투기

- 은밀하게 다투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슬기반 여아들은 갈등 상황에서 주로 언어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들의 갈등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을 경계하며 조용히 갈등 상황을 전개하였다.

(가방 장 앞에서)

하진 : 너 이거 가져. (그림 그린 것을 오려서 민아에게 주며)

민아 : 싫어. 다른 거 줘.

하진 : 이거 가져.

민아 : 싫다니까. 다른 거 줘.
 지선 : (오린 것을 민아 손에 쥐어준다.)
 민아 : (하진이에게 다시 준다.)
 하진 : (오린 것을 민아 가방 장에 놓는다.)
 민아 : (하진 가방 장에 다시 놓는다.)
 하진 : (민아 가방 장에 다시 놓으며) 가지라니까.
 민아 : (하진 가방 장에 던지면서) 싫다니까.
 하진 : 너 이거 안가지면 죽을 때까지 안 그려 줄 거야.
 민아 : 그래도 안 가져.
 (하진이에게 다시 던지며 가버린다.)
 하진 : (승아에게) 니가 가져.

(2015. 11. 4 관찰)

위의 사례에서 보면 민아는 다른 그림을 원하지만 하진이는 손에 들고 있는 그림을 민아에게 주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음으로써 계속적으로 언쟁이 벌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언쟁은 교사의 자리와 멀리 떨어진 가방 장 앞에서 하고 있으며 또한 교사에게 등을 돌린 채로 두 친구가 나란히 붙어서 언쟁을 벌이고 있으므로 가까이 가서 귀 기울여 듣지 않고서는 갈등상황이라는 것을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유아들도 알기가 힘들다. 민아와 하진이는 친구와 다투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교사에게 알려 지지 않도록 조용히 하였다. 연구자도 처음에 유아들과 라포가 형성되기 전에는 유아들에게 가까이 가면 유아들이 연구자의 존재를 의식하여 갈등 상황을 멈추기도 해서 관찰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정도로 유아들의 갈등은 조용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미술영역)

승아 : 왜 나만 안 빌려 주냐구?

예서 : 나두 빌려주지.

하진 : 우리 집 너희 집과 멀어.

승아 : 너 무슨 아파트데?

하진 : 한솔.

승아 : 엄마한테 물어 볼 거야.

하진 : 집이 멀어서 안되.

승아 : 차타고 가면 되잖아?

하진 : 그래두 멀어서 안되.

(2016. 10. 19 관찰)

위의 사례에서는 승아가 하진에게 만화책을 빌리고 싶다고 하는데 하진은 집이 멀어서 안 된다고 거절한다. 여아들은 미술영역에서 손으로는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말로는 위와 같은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가까이 가서 듣지 않고서는 유아들이 말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조용히 얘기하였다. 슬기반 여아들은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주위를 의식하면서 조용하게 말로 갈등 상황을 전개해 나갔다.

- 감정 표출하여 다투기

주변을 의식하며 조용히 갈등을 전개하는 슬기반 여아들과는 달리 슬기반 남아들은 주변상황보다는 당면한 상황에 적극적이며 즉흥적으로 갈등 상황을 전개시켰다. 슬기반 남아들은 여아들에 비해서 다양한 언어표현이 어려우므로 신체적 행동이 먼저 나왔으며 조리 있는 대화보다는 큰 소리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즉흥적인 큰 소리는 갈등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표현이 서툰 슬기반 남아들에게는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다.

(쌓기영역)

희준 : 내가 가져 갈 거야.

승호 : 내꺼야.

(희준이가 승호가 가지고 있던 블록을 가져간다.)

승호 : 내 견데 왜 가져가?

(승호가 다시 블록을 낚아채가며 팔로 확 친다.)

희준 : 야! (소리 지른다.)

승호 : 니가 내 거 가져갔잖아?

승운 : 선생님 싸워요.

희준 : (승호에게 화를 내며) 발 치워.

(2016. 10. 14 관찰)

위의 사례는 슬기반 남아들이 갈등상황에서 소리를 높여서 감정을 표출하여 다투는 상황이다. 희준이가 승호가 가지고 있던 블록을 가져가지 못하자 소리를 질러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였다. 이와 같이 슬기반 남아들 사이에서는 조리 있게 얘기하면서 다투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자 언성을 높이는 갈등이 자주 보였다. 물론 유치원이라는 환경의 특성상 주변에 교사와 친구들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여아들에 비해 이러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양상은 두드러졌다.

(미술영역)

(승호, 세린, 가은, 인서가 활동지에 색을 칠하고 있는데)

승호 : (인서의 색연필을 가져간다.)
 인서 : 야~ 그거 내거야.
 승호 : (인서 목소리 흉내내며) 야~ 그거 내거야.
 인서 : (소리를 높이며) 따라하지마.
 승호 : (인서와 같이 소리를 높이며) 따라하지마.
 세린, 가은 : (웃는다.)
 인서 : 따라하지 말라니까.
 승호 : (웃으면서 따라하며) 따라하지 말라니까.
 세린 : 야 이제 그만해.

(2016. 11. 4 관찰)

위의 사례는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친구를 따라하는 장난을 하다가 점점 언성이 높아지고 다툼이 되어가는 상황이다. 승호가 인서의 색연필을 가져갔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었는데 갈등 과정에서 색연필에 대한 문제는 사라지고 승호가 인서의 말을 따라한 것 때문에 인서가 화를 내며 언성을 높게 됐다. 이와 같이 슬기반 남아들은 갈등 과정에서 여아들과 같이 말을 주고받으며 언쟁을 벌이기보다는 순간의 감정을 표출하여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슬기반 여아들과 슬기반 남아들은 갈등 상황을 전개해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슬기반 여아들은 갈등 상황을 언어로 표현하였으며 친한 친구와 편을 만들어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고 주위를 의식하여 은밀하게 말로 다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반면에 슬기반 남아들은 언어적 방법 대신 신체적 방법을 자주 사용하였으며 ‘누구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현재의 감정을 소리를 높여서 표현하여서 갈등을 전개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3. 여아와 남아의 또래 간 갈등의 해결 양상

유아들은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자신만의 사회적 기술을 이용하여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지만 아직 사회적 기술의 발달 과정에 있고 자기중심적 사고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므로 갈등 해결에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유아들의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유아의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능력발달에 필수적이며 사회적 기술의 중요한 요소이다(김영희, 1999). 슬기반 유아들 간의 갈등의 원인과 전개 양상과 마찬가지로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남아와 여아가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기반 여아들은 슬기반 남아들에 비해 힘이나 강력한 주장 대신에 합리적 협상이나 타협 등의 효율적인 방법을 선호했으며 남아들은 주로 공격적이며 결과지향적인 방법을 선호하였다.

1) 타협하기 vs 승부내기

- 타협하기

슬기반 여아들의 경우 자신들의 주장을 우격다짐으로 주장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장하는 경향이 강했다. 여아들은 남아들에 비해 언어 발달이 빠르고 관계를 중요시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하고자 하는 특성으로 인해 갈등해결을 위해 상대방과 타협을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슬기반 여아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금씩 양보하고 절충하여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쌓기영역)

민아 : 나 다리 좀 주라.

승주 : 내가 쓰고 있는데.

민아 : 나 그거 있어야 되는데.

승주 :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지금은 없어도 되니까 지금은 니가 쓰고 이따가 내가 필요하면
나주라.

(2015. 8. 25 관찰)

(미술영역)

세린 : (하늘색 색연필을 가리키며) 이거 내가 쓰던 건데 왜 가져가?

나래 : 나두 필요해서.

세린 : (나에 손에서 색연필 가져와서 그림) 이걸 내가 쓸 거야.

나래 : 나두 지금 하늘색으로 칠해야 하는데.

세린 : 승운이 앞에 있는 거 쓰면 되잖아?

나래 : (승운이 앞에 있는 하늘색 색연필 집어온다.)

(2016. 12. 23 관찰)

위의 사례들에서 보면 어떠한 갈등 상황에 당면했을 때 슬기반 유아들은 서로가 수긍하며 양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타협점을 찾는다. 어느 한 쪽만의 입장에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서로가 납득이 갈 수 있는 타협점을 제공하여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미술시간에)

지환 : (싸인펜 통 당기며) 난 손이 안 닿잖아.

정훈 : (다시 당기며) 그렇게 하면 내 손이 안 닿잖아.

지환 : 색연필통도 가져가지마.

정훈 : 내가 못 쓰잖아.

시은 : (싸인펜 통과 색연필 통을 가운데 놓으며)이렇게 놓으면 되지?

다 잡아 당기지마.

(2015. 11. 4 관찰)

(바깥놀이에서)

세준 : (기둥잡고)

소희 : (그 기둥에 붙으며) 내가 잡을 거야

세준 : 내가 먼저 잡았잖아

영아 : (다른 기둥 가리키며) 이거 잡으면 되잖아

세준 : (다른 기둥으로 간다)

(2015. 10. 28 관찰)

위의 사례들과 같이 슬기반 남아와 여아가 같이 갈등상황에 있을 때 남아들은 덜 공격적이 되며 여아들은 타인을 배려하는 효과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남아들을 이해시키며 바람직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남아들끼리 언어로 갈등을 해결하는 경우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언어 공격을 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여아들이 합리적인 언어로 타협을 시도하고자 하는 경우는 남아들도 쉽게 타협을 하였다.

- 승부내기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타인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는 지가 중요한 슬기반 여아들과는 달리 슬기반 남아들은 스스로의 지배력이나 권력의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경쟁의식이 강하여 모든 면에서 승부의식을 드러내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성향은 갈등해결 양상에서도 나타났다.

(미술영역)

(진우가 싸인펜으로 종이에 그리다 책상에 낙서를 한다.)

민아 : 너 이거 여기에 그리면 안 돼.

진우 : 내가 안 그렸는데(손으로 책상에 그린 것을 문지른다.)

민아 : 니가 지금 그렸으니까 손에 묻잖아.

 선생님한테 다 말할 거야.

진우 : (웃으며) 내가 안 그렸다니까. (손으로 귀를 막는다.)

(2016. 8. 26 관찰)

(조작영역)

창우 : (메모리 카드 게임하면서 몰래 들춰본다.)

진욱 :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

창우 : 모르고 본거야.

진욱 : 너 일부러 본거잖아?

창우 : 아니야 모르고 본거야.

진욱 : 너 이길려구 본거잖아?

(2015. 12. 2 관찰)

(미술시간)

인서 : 내가 가져 갈 거야 .

(주황색 티셔츠모양의 종이를 가져가려다 종이가 찢어진다.)

선생님 종이 찢어 졌어요.

민재 : 애가 잡아당겨서 찢어 졌어요.

(2015. 8. 26 관찰)

첫 번째 사례에서 성우는 책상에 그림을 그렸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우겼고 두 번째 사례에서 창우는 카드를 몰래 들춰봤는데도 끝까지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억지 주장을 밀어붙이고 우기며 승부욕을 발휘한다. 세 번째 사례에서 인서는 민재에게 절대 종이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결국은 종이가 찢어지게 된다. 두 경우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의 갈등상황에서 이겨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였다.

2) 회유하기 vs 회피하기

- 회유하기

슬기반 여아들은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상황을 상대방이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언어표현을 통해 갈등상황을 해결하였다. 다양한 근거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여 친구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어 갈등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갔다.

(놀이터에서 자연물가지고 소꿉놀이를 하는데)

민아 : 선생님이 오래.

수린 : 이거 정리해야 돼.

민아 : 이걸 안 해도 되, 나뭇잎들은

수린 : (손으로 나뭇잎 정리한다.)

민아 : 여기 다른 나뭇잎들도 원래 많았으니까 그냥 가자.

(2015. 10. 28 관찰)

(역할영역)

승주 : 우리 엄마, 아빠 놀이 하자.

예서 : 우리 병원놀이하고 있는데

승주 : 나 엄마하고 싶어.

민아 : 우리 병원놀이가 더 재밌어.

승주 : 나 엄마하고 싶단 말이야.

예서 : 그럼 병원에 아이 데리고 오는 엄마 하는 거 어때?

승주 : 그래 알았어. 나 엄마 한다.

(2016. 12. 23 관찰)

(미술영역)

이제 : 나만 이상하게 그려줘.

하진 : 뭐가?

이제 : 머리카락.

하진 : 우리 아빠가 이게 예쁘대.

이제 : 나두 재네들처럼 머리카락 없이 그려줘.

하진 : 어차피 재네들은 남자야.

이제 : 그래두 저게 예쁘단 말이야.

하진 : 그 대신 사람은 예쁘게 그려 줄게.

이제 : 알았어.

(2016. 10. 14 관찰)

첫 번째 사례에서 민아는 놀이터에 원래 나뭇잎이 많았다는 것을 이유로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수린이를 설득하여 갈등을 해결하였으며 두 번째 사례에서는 다른 유아들이 자신들의 놀이를 확장하여 승주가 원하는 역할을 만들어 줌으로써 승주에게 공감을 이끌어내고 회유함으로써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였다. 세 번째의 사례에서는 이제가 하진이가 그려준 그림에 불만을 표시하며 다른 친구와 같은 그림을 그려달라고 갈등하는 상황인데 하진은 머리카락 대신에 얼굴을 예쁘게 그려준다는 대안을 제시하여 이제를 회유한다. 이와 같이 슬기반 유아들은 억지나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근거와 이유에 의한 설득에 의해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슬기반 남아들은 신체적 공격을 하거나 소리를 높여서 갈등을 전개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으나 슬기반 유아들은 언어적인 전략에 의해서 비교적 조용히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 회피하기

슬기반 남아들은 갈등이 발생하고 의견이 대립되었을 때 갈등 해결 과정에서 끝까지 갈등을 해결하기 보다는 상황을 모른 척하거나 대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할 의사가 없을 때 회피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조작영역)

선우 : 나 할 차례야.

준서 : 아니야. (어깨로 치면서)

선우 : 왜 너만 계속해?

준서 : 내 차례 맞아. (주사위를 돌린다).

선우 : 내 말 갈 차례란 말이야.

준서 : 나 안 해. (가버린다.)

(2015. 10. 28 관찰)

(교실에서)

승준 : (책상을 민다.)

보람 : (카드를 정리하는데 책상이 밀려오자) 밀지 마.

승준 : (책상 줄) 이거 맞춰야 해.

보람 : 지금 하지 말라니까.

우리 정리 중이잖아.

승준 : (끝까지 책상을 밀어놓고) 가버린다.

(2015. 10. 28 관찰)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슬기반 남아들은 더 이상 갈등상황에 대응하고 싶지 않을 경우 그 상황을 회피함으로써 갈등상황을 외면해버렸다. 첫번째 사례의 준서는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기 싫어서 게임을 하다말고 그대로 가버렸고 두번째 사례에서 승준이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는 방법으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해버리고는 상황을 회피해버렸다. 남아들은 길게 얘기를 하며 다툼을 벌이기보다는 행동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회피전략을

사용하였다.

(조작영역)

승준 : 이거 가위바위보해서 가지기로 했지?

진욱 : 어차피 내거야.

승준 : 그럼 난 안해.

진욱 : 그래 하지 마.

승준 : (일어나서 가버리자)

진욱 : (쫓아가서) 너 하던 건 정리하고 가야지.

승준 : 알았다구.

(2015. 10. 14 관찰)

위의 사례에서 승준이는 진욱이가 제시한 방법이 맘에 안 들어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싶은 마음에 이 상황을 회피하여 가버린다. 그러나 진욱이는 다시 쫓아가 정리하고 가라고 한다. 회피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갈등상황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위의 사례와 같이 회피가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상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슬기반 여아들과 남아들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서도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여아들은 주로 언어적 방법을 사용하여 갈등 상대들과 협력하거나 회유를 하였다. 반면 남아들은 갈등 상황에서 승부를 내서 갈등을 끝내는 것이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는 회피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만 5세 유아들이 유치원 하루일과에서 경험하는 갈등을 관찰하여 갈등의 원인, 전개, 해결 과정에서 여아와 남아가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여아와 남아의 또래 간 갈등의 원인

여아와 남아의 또래 간 갈등의 원인에 있어서 슬기반 여아와 남아는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여아들은 놀이의 주도권, 규칙 위반에 대한 지적이 주요한 갈등의 원인이었으며 남아들의 경우는 놀잇감이나 공간의 소유권, 놀이방해가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갈등의 원인의 첫 번째는 여아들의 경우는 놀이에서 주도권을 내세우거나 역할 놀이에서 역할을 결정하는데 주도권을 드러내는 것이었으며 남아들의 경우는 놀잇감과 공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여아들은 역할을 정하거나 순서를 정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의견의 대립으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 여아들은 주도권을 가지고 상황을 이끌려고 했다. 이에 반해 남아들은 물건이나 영역의 소유권에 민감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여아들은 남아들에 비해 언어 발달이 빠르고(한애희, 2009) 타인과의 관계에도 민감하여(Miller, 1986) 자신의 주도권을 은밀히 드러냄으로써 다른 유

아와 의견이 대립 되고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또 갈등이 발생했을 때 또래들을 통제하고 제재하고자하여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했다. 즉 남아들은 단순한 소유권의 분쟁이 대부분 갈등의 원인이 되지만 여아들의 경우 보다 주도면밀하게 소유권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주도권으로 발전시키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여아들은 또래관계에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또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목표를 달성해가는 능력인 주도성이 남아에 비해 높으므로(박은주, 2008) 이러한 면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으며 남아는 놀이를 하는데 있어 전체적인 놀이 상황보다는 놀이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놀이 상황의 놀잇감이나 영역 등의 소유가 중요한 사안이므로(문윤경, 2003) 소유권이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갈등의 원인에 있어 성차가 비교적 빨리 나타나며 여아의 경우는 역할놀이의 결정과 같은 사회적 통제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나 남아는 사물의 통제의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Hay(1984)와 Miller(1986)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갈등의 특성을 분석한 김지현(1997)연구에서도 갈등의 원인으로 여아의 경우는 주로 역할을 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많았고 남아의 경우는 사물을 차지하는 경우 갈등이 많았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갈등의 원인에 있어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이유로 여아와 남아의 놀이 선호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성민, 2001; 권광자, 1993; 이지현, 1998; 이희선, 2007). 즉 여아가 선호하는 흥미영역은 역할영역으로 역할 결정에 관한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남아가 선호하는 흥미영역은 쌓기영역으로 사물이나 영역의 소유에 대한 갈등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아와 남아가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류미영(2008)의 연구에서도 성에 따라 갈등의 쟁점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여아와 남아가 선호하는 놀이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갈등의 원인 두 번째는 여아들은 규칙 위반에 대해 지적을 하는 것에 기인하여 남아들은 놀이를 방해함으로써 갈등이 자주 발생하였다. 여아들의 경우 다른 또래 유아들이 놀이를 하는데 규칙을 위반하거나 교실 내에서 준수하기로 한 약속이나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규칙을 지키지 않은 유아들에게 규칙을 준수하도록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면은 여아들이 또래집단이나 성인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주변의 상황에 관심이 많으며 언어적 표현력이 높은 기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송명자, 2000).

이에 반해 남아들은 의도적이지 않게 단순한 즐거움을 위해서 놀이를 방해하거나 또는 같이 놀이를 하고 싶는데 참여시켜주지 않아서 서운한 마음의 표현으로 놀이를 방해하여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놀이나 상호작용을 하는데 있어 여아보다 놀이방해와 관련된 행동이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김윤희(2010)의 연구 결과와 남아들의 갈등의 원인 중 하나가 놀이방해라고 보고한 문윤경(2003)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여아들의 경우는 놀이의 과정이나 유치원 일과시간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규칙위반의 상황에서 규칙을 바로 잡아 상황을 좋게 만들려는 과정에서 갈등이 야기된 상황이었으나 남아의 경우 본인의 단순한 즐거움과 흥미를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놀이방해 행동을 했다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아의 경우는 주도권을 나타내고 규칙위반을 지적하는 것이 또래 간 갈등의 원인이었고 남아의 경우는 소유권을 주장하고 놀이를 방해하는 것이 또래 간 갈등의 원인으로 여아와 남아의 갈등의 원인이 다른 양상을 보였다.

2) 여아와 남아의 또래 간 갈등의 전개 양상

여아와 남아의 또래 간 갈등의 전개 양상에서 슬기반 여아들은 언어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편을 만들어서 또한 조용히 은밀하게 갈등 상황을 전개하였고 남아들은 갈등 상황에서 신체적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고 홀로 갈등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소리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면서 갈등을 전개하였다.

갈등의 전개 양상에 있어 첫 번째는 여아들은 말로 하는 언어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고 남아들은 여아들에 비해 몸을 사용하는 신체적인 방법과 같은 비언어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유아의 발달에서 여아들은 남아들에 비해 언어 발달에서 뚜렷한 성차를 보이고 있으므로(권하나, 2000) 여아들은 갈등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가거나 상대방을 회유하는 전략을 펼쳤다. 반면 남아들은 여아들보다 공격적인 전략과 적대적인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여아들은 갈등 상황에서 또래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위해 우호적인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남아들은 빼앗거나 거절하는 등의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한다는 김상윤(2006), Miller(1986)의 연구 결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여아들은 이유대기와 같은 언어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는 김희진, 이지현(2001)연구와 여아들은 언어적 공격성을 남아들은 신체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이고 있다는 Hay(1984), Shantz(1986)의 연구 결과는 남아와 여아의 갈등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남아들은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차이로 인해서 신체발달이나 운동발달이 여아들에 비해 빠르며 신체활동을 좋아하고 신체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손원경, 2011). 남아들이 사회·환경적인 영향으로 여아들에 비해 공격성이 높기는 하지만(윤종선, 2011) 교육기관의 교실은 여아 친화적인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적이고 언어적인 여아들에게 적합하

므로 비언어적이고 신체활동이 활발한 남아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문제적이고 공격적인 존재로 인식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갈등의 전개 양상에 대한 결과의 두 번째는 여아들은 갈등과정에서 친한 친구들과 편을 만들어서 상대유아와 대립하였으나 남아들은 편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혼자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다. 여아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고 예민하게 생각하는 관계지향적 성향으로 갈등 상황에서 관계적 공격성(이유진, 2002)을 많이 보였으며 혼자서보다는 또래 친구와 편을 만들어 공격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여아들은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박주희(2001)의 연구와 여아들에게서 관계적 공격성이 많이 나타난다는 이지현(2011)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Crick & Grotpeter(1995: 김희진, 이지현, 2001에서 재인용) 연구 결과에서도 여아는 남아보다 친구를 홍보거나 따돌리는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조정하며 갈등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관계적 공격성에서 유의미한 성별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성복(2011)의 연구결과와는 같지 않다. 이처럼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은 것은 관계적 공격성 측정 도구 문항이 연구자들마다 다르기 때문이며 또한 관계적 공격성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측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여성은 다른 사람과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하고자하는 공감 능력이 남성에 비해 더 높으므로(구재선, 김혜리, 박은혜, 조정자, 2009) 여아들은 또래들과 편을 만들어 같은 감정을 공유하면서 갈등을 해결해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다른 유아들을 배제시키고 상처를 주는 결과를 야기하여 또 다른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었다. 반면에 남아들의 경우 또래들과 편을 먹고 공격하기보다는 혼자서 자기 본의대로 갈등을 겪었다. 이는 남아들은 여아들보다 자기중심성이 강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한다는 조상훈(200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남아들의 특성은 여아와의 구조적이고

생리적인 차이로 인한 점도 있지만 남성은 강해야 한다며 독립적으로 행동하도록 한 사회화 과정(김희진, 이지현, 2001)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갈등 전개 양상에 있어 세 번째는 여아들은 조용하고 드러나지 않게 다른 유아들과 갈등을 하지만 남아들은 자신의 갈등 상황에 충실하며 감정을 표출하였다. 주변의 상황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여아들은 갈등의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살피며 조용히 갈등을 전개시킨다. 멀리 있는 사람이나 교사들이 곁에서 보기에 놀이를 하거나 대화를 하는 것이라 여길 만큼 조용하게 언쟁을 벌이곤 했다. 이는 여성은 순응적이고 조용해야 여성적이고 큰소리로 주장하거나 소리치는 것은 여성에게 있어 부정적이고 금기시해야 한다는 사회문화적인 고정관념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아들의 경우 갈등의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하면서도 상대방의 상황과 주변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남아들에 비해 온화하고 억제된 갈등을 갖는다는 김희진·이지현(2001)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과는 달리 여아들의 갈등이 남아들의 갈등보다 적지 않았으며 여아들의 목소리가 남아들의 목소리보다 약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남아들은 갈등을 전개해나가는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친구를 놀리고 친구에게 헐박을 하는 등의 언어적 공격을 많이 하였다. 여아에 비해 언어발달이 늦은(한애희, 2009) 남아는 체계적이고 조리 있는 언어적 표현이 어려우므로 소리를 질러 감정표현을 하였다. 갈등상황에서 남아는 여아에 비해 신체적 공격 및 헐박하기, 욕하기, 소리 지르기 등의 직접적인 언어공격을 많이 사용한다는 Miller(1986)의 연구와 남아들은 욕을 하면서 싸우는 일이 많고 위협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며 권력주장을 많이 사용한다는 Maccobby(1987: 김희진, 이지현, 2001에서 재인용)의 연구 결과는 남아와

여아가 갈등을 전개하는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아들은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언어적으로 편을 만들어서 조용히 갈등을 전개시켜 나갔으나 남아들은 신체적 전략을 이용하여 혼자서 소리로 감정을 표출하면서 갈등을 전개시켜 나가는 양상을 나타냈다.

3) 여아와 남아의 또래 간 갈등의 해결 양상

여아와 남아의 또래 간 갈등의 해결에서도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여아들은 언어적인 타협과 회유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였고 남아들은 승부를 내하고자 했고 회피의 방법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다.

첫 번째로 갈등의 해결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면 여아들은 언어적인 타협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였고 남아들은 승부를 내어서 갈등을 해결하였다. 여아들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방법과 대안을 내세워 타협을 하여 갈등을 해결하였다. 여아들은 남아들에 비해 주도성, 협력성, 사교성 등과 같은 친사회적 능력이 높으므로(심수영, 2014)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공감하고 수용하는 자세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가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전략으로서 협력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선행연구(김희진, 이지현, 2001; 박향아, 2012; 배선영, 2000; 신선영, 2009; Hartup, 1992)로 뒷받침 된다. 여아들은 상호작용을 하는데 있어서도 놀이 상대와 협력적이고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상대와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며(권연희, 2012) 놀이 활동을 할 때에도 주로 협력과 배려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손유진, 2006) 것을 나타낸다.

남아들의 경우 갈등의 과정에서 승부를 내어 갈등을 해결하였다. 당면한 갈등 상황에서 지배적인 권력의지를 드러냄으로서 승부를 결정지어 갈등의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였다. 이는 남자들은 전통적인 사회에서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적 힘과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회화 과정과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다. 남아가 여아에 비해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서 지배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신선영(2009), 정선영(2001)의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박향아(2012)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배전략에서 성차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는 남아들의 해결전략이 강해보이지만 실제로 여아들의 해결전략이 약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실제 갈등상황에서 남아들과 여아들의 다른 해결방법이 갖는 영향력이 어떠한지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승부를 내고자 하는 남아들의 갈등해결방법은 승패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쟁적인 놀이, 게임, 스포츠 등을 좋아하는 남아들의 기질과 관련 지어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 갈등의 해결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면 여아들은 언어적 방법을 사용하여 갈등상대를 회유하였고 남아들은 갈등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여아들은 남아들보다 성숙 속도가 빨라 언어발달과 사회적 기술이 먼저 발달하므로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친사회적인 방법으로 또래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였다(Eisenberg, 1996). 즉 갈등관계의 친구를 자신의 편으로 설득하여 평화롭고 조화롭게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높은 공감능력이나 언어적 의사소통능력과 연관 있는 주도성(심수영, 2014; 조상훈, 2007)을 가지고 회유를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들은 회유와 협력, 절충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Miller(1986)의 연구와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전략을 사용하여 해결한다는 Shantz(1986)의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여아들의 이러한 갈등해결방법은 여아들의 주장이 조용하기는 하지만 결코 남아들에 비해 약하지 않으며 이런 방식이 갈등을 완화시키며 집단에

대한 적응과 화합을 통해 집단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매우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남아의 경우는 갈등의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거나 상대방과 타협하고자 하지 않을 때 직면한 갈등 상황을 회피하여 갈등을 해결하였다. 이러한 경우 갈등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한 미흡한 해결에 의해서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남성은 자신의 생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자신의 뜻에 맞지 않고 원하지 않으면 강하게 대응하고 의사표시를 해야 남자답다는 고정관념을 유아들이 습득하게 되어 이러한 남아의 특성이 나타난다(김희진, 이지현, 2001)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선영(2009)의 연구에서 갈등해결에 있어 남아는 여아에 비해 회피, 지배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박향아(2012)의 연구는 회피 전략에서는 남녀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배선영(2000)의 연구는 갈등 상황에서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해 회피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이는 인기아는 타협과 같은 친사회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배척아는 회피 전략을 사용한다는 한제인(1994)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유아의 갈등해결전략에 있어 유아의 또래지위나 친구관계의 질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여아와 남아의 갈등의 해결에서도 여아와 남아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여아는 언어적인 전략을 사용한 타협과 회피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남아는 승부를 내어서 해결하려 했으며 때로는 갈등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여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유아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갈등의 원인, 해결과정, 해결방법에는 여아들과 남아들이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와 남아의 다른 양상을 파악한다는 것이 여자는 이렇고 남자는 그렇다는 성

전행화로 결론 지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여아와 남아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법을 달리하여 진정한 의미의 양성 친화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 2004).

대부분이 여성으로 구성된 유아교사들은 여아와 남아에 대해 성 고정적이고 전통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아들은 더 긍정으로 인식하고 남아들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손원경, 손유진, 2007). 이러한 면에 비추어 볼 때 여아와 남아에게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교육방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여아와 남아의 특성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2. 결론 및 제언

앞서 분석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만 5세 유아들의 갈등에서 나타나는 여아와 남아의 양상에 대한 결론과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아와 남아의 또래 간 갈등의 원인의 양상을 보면 여아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이나 놀이에서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났으며 남아들은 놀잇감이나 영역에 대한 소유권을 다투으로써 갈등이 일어났다. 또한 여아들은 또래친구의 규칙 위반을 지적함으로써 갈등이 시작되었고 남아들은 또래친구들의 놀이방해를 함으로써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여아와 남아의 또래 간 갈등의 전개 양상에서 여아들과 남아들의 양상을 보면 여아들은 주로 언어적 전략으로 갈등을 전개시켰으며 남아들은 신체적 전략으로 갈등을 전개시켰다. 또한 여아들은 또래 친구들과 편을 먹고 갈등을 했으며 남아들은 '누구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

로 혼자서 갈등과정을 겪었다. 마지막으로 여아들은 주위를 의식하며 조용히 갈등을 드러내지 않고 갈등을 하였으나 남아들은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감정을 표출하여 소리를 내고 드러나는 갈등을 펼쳐나갔다.

셋째, 여아와 남아의 또래 간 갈등의 해결 양상에서 여아들은 타협을 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였고 남아들은 지배적으로 밀어붙여 승부를 내고 나서야 갈등을 종결하였다. 또한 여아들은 친구들을 회유하여 갈등을 해결하였고 남아들은 상황을 회피하여 외면함으로서 갈등을 해결하였다.

이와 같이 여아들과 남아들은 갈등의 전 과정에서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났음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만 5세의 갈등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차와 그 의미를 살펴 보았는데 연령에 따라서 나타나는 성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만 3세나 만 4세 등의 다른 연령의 성차를 살펴봄으로써 연령에 따른 성차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2학기에 일어난 갈등을 관찰하여 연구하였는데 학기 초에 발생한 갈등에서 나타나는 여아들과 남아들의 성차는 양상이 다를 것으로 보는 바 후속 연구에서는 학기 초와 학기말에 나타나는 갈등에서의 성차를 관찰하여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갈등과정에서 나타나는 여아들과 남아들의 다른 양상을 경기도의 사립유치원 한 학급 유아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도출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기관의 많은 연구대상을 확보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참 고 문 헌

- 강유진(2013). 유아의 놀이주도성과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관계.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강의정(2006). 유아의 사회적 갈등 양상 및 갈등해결전략에 관한 연구. 육아지원연구, 1(1), 25-42
- 강현경(2009). 유아 사회적행동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고순옥(2004). 영유아 정상아동의 언어발달과 사회·정서발달 및 환경요인과의 상관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고여훈(2013). 하늘반 유아들의 거친 신체 놀이 특징과 교사의 상호작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고인옥(2001).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유아들의 갈등해결전략과 교사의 역할.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고현희(2008). 뇌의 성차와 다중지능.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고희선(2010). 부모-유아의 의사소통 및 형제변인에 따른 유아의 또래 간 갈등해결의 질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경숙(2002). 어린이집 영아들의 갈등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2세아를 대상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연희(2003). 아동의 정서성과 대인간 문제 해결 전략 및 어머니의 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권연희(2012). 남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놀이 시 또래상호작용의 관계에

- 대한 교사-유아간 갈등적 관계의 조절효과. 유아교육연구, 32(2), 29-48
- 김균희(2006). 유아 간 발생하는 또래갈등과정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2(2), 165-185
- 김균희, 이완정(2006). 어린이집 활동시간에 나타나는 또래갈등상황분석. 아동과 권리, 10(4), 723-749
- 김기경(1993). 유아의 교차된 성역할 행동에 관한 추론과 성유형화된 놀이감 선호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경(2004). 점토놀이를 통한 유아의 사회적 행동변화.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보현(2008). 블록 놀이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또래 관계 탐색.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송이(2001). 또래 지위와 친구 관계에 따른 아동의 또래 갈등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성민(2001). 유아의 기질, 성 및 형제 유무에 따른 놀이행동 연구.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신형(2005). 또래갈등 상황에 대한 유아들의 인식과 연령별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아름(2009). 또래지위와 마음읽기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진(2004). 뇌 기능 특성에 기초한 수업체제 개발 및 적용이 학습태도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희(1999). 유아의 또래간 갈등해결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유화(2008). 유아의 놀이문화 형성 과정 속 “갈등”에 대한 질적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5), 269-284

- 김윤희(2009). 유아의 성별과 인기도에 따른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놀이행동.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영(2007). 남녀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와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은, 진건(2005). 남녀 성 차이를 고려한 의학. 여성건강, 6(2), 75-90
- 김효정(2015). 교사가 인식하는 유아의 성별 특성의 차이.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선(2011). 유아의 성별에 따른 놀이성과 정서능력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민(2008). 유아의 성별에 다른 교사-유아 관계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진, 이지현(1997). 5세 유아간 갈등의 특성과 교사의 중재방식. 교육학연구, 35(3), 241-261
- 김희진, 이지현(2001). 유아의 연령 및 성구성에 따른 또래간 갈등의 양상. 교육학연구, 39(2), 99-119
- 김희태(2005). 자유놀이에서 나타나는 유아들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이해.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2), 321-342
- 나희정(2010). 초등학생의 성별, 학년별 공감하기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류미영(2008). 자유 선택 활동 시간에 나타난 또래 갈등 쟁점과 또래 갈등 해결 유형 및 교사 개입 유형,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류철선, 최유경(2015). 유아의 연령에 따른 사회적 문제해결 행동에 대한 연구. 어린이미디어연구, 14(1), 171-188
- 문유신(2015). 유아의 성, 연령, 도덕성 및 공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가

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문윤경(2003). 유아의 또래간 갈등 원인과 해결방법 - 어린이집 자유놀이 시간을 중심으로 -.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문혁준(2010).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어머니 변인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 6(1), 251-267

박대근(2005). 유아기 대,소근육 운동 발달의 과정적 특성.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박선희(2015). 만5세 유아의 사회적 갈등 상황의 의미에 대한 문화 기술적 연구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중심으로 -.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성아(2010). 유아의 리더십, 친사회적 행동 및 기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영아(2010). 유아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식과 사회적 기술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65(-), 1-17

박은주(2008). 만 4세 유아의 성별에 따른 놀이성과 또래 유능성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은혜, 김혜리, 조경자, 구재선(2009). 성차에 대한 Baron-Cohen의 공감하기-체계화하기 이론 검증.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4(2), 269-286

박정란(2008). 4세 유아를 위한 또래관계 형성 프로그램의 구성 및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종인(1997). 유아의 성차에 따른 인물화 표현 특징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주희(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향아(2012). 성, 연령 및 정서지능에 따른 유아의 갈등해결전략에 관한 연

- 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2), 41-59
- 박화윤, 안라리(2006). 유아의 성에 따른 정서 인식수준과 사회적 능력 및 또래수용도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6(1), 271-292
- 배선영(1999).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배윤정(2011). 유아의 연령, 성별 및 부모의 연령에 따른 유아의 자아개념과 또래유능성.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백지연(2007). 교사 평정에 의한 유아의 놀이성과 실제 놀이주도성의 관계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미정(2011). 아동과 청소년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의 성별 차이 및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아동학회, 32(3), 143-162
- 손영숙, 지상현, 장현갑, 성영신, 강은주, 이정모, 김완석, 김명선, 김성일, 김문수(2004). 마음을 움직이는 뇌 뇌를 움직이는 마음. 서울: 해나무
- 손원경(2011). 남아와 여아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및 상호작용.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1), 121-148
- 손원경, 손유진(2007). 남아와 여아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7(2), 163-179
- 송명숙(2007). 유치원 소집단 활동에서 나타나는 유아들 간의 갈등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미선(2001). 또래갈등상황에서의 유아의 전략, 사회적 행동특성, 그리고 또래수용도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2(3), 229-239
- 신명희(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 놀이행동 관계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명희, 강소연, 김은경, 김정민, 노원경, 서은희, 송수지, 원영실, 임호용 (2016). 유아발달. 서울 : 학지사

- 신유림(2008). 또래 거부에 대한 친구의 사회적 행동과 친구관계 질의 상호적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9), 61-69
- 신선영(2009). 아동의 성 및 또래지위에 따른 의사 소통능력과 갈등해결전략 분석.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은수, 권미경, 정현빈(2010). 유아의 사회적 기술,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놀이 행동 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4), 183-209
- 심수영(2014).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교사-유아관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현정(2000).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발달과 사회적 덕목 수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엄정례(1998). 유아의 또래간 갈등상황 분석.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2(1), 151-177
- 위영희(2004). 유아의 정서 능력과 또래 유능성. 교육발전, 23(1),
- 유희정(2004). 동화를 활용한 갈등해결 교수 전략이 3세 유아의 또래간 갈등양상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윤수진(2013). 만 5세 유아의 또래 간 갈등 개선 방안에 관한 실험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종선(2011).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남아와 여아의 성차를 중심으로. 가천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혜련, 김영태(2004). 성별에 따른 영·유아 언어발달의 특성 연구 : SELSI를 중심으로. 언어청각장애연구, 9(1), 30-44
- 이난주(2012). 유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기질 및 교사-유아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빛나(2015). 교사의 유아 성에 따른 특성 인식 및 지도의 어려움. 중앙대

-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성복(2011). 유아의 신체적 및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선혜(2011). 만 5세 유아의 또래갈등에서의 사회적 힘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슬아(2013). 유아들의 사회적 놀이시 발생하는 갈등과 갈등이후 사회적 놀이의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예지(2014). 그림책 활용 자기조절활동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행동 변화 탐색.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주(2014). 아동의 자기수용 및 공감 수준에 따른 친구 간의 갈등해결전략의 차이.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채(2005). 아동의 갈등해결전략과 또래 애착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아(2011). 초등학생의 공감하기, 체계화하기와 또래수용도 간의 관계.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혜원(2011).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변인들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 유아의 성, 연령, 기질과 어머니의 학력 및 취업유무를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희선(2006). 창의성 수준에 따른 남녀 유아의 선호 놀이영역 및 놀이유형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승연(2015). 의과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공감하기-체계화하기 성향 및 두뇌 유형과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혜림(2016). 사회적 갈등 상황에 대한 극화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은주(1999). 유아의 성별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또래놀이 상호작용 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호진(2011). 유아들의 쌓기놀이에 나타난 의미와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윤이(2012). 유아의 언어표현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덕희(2011). 유아의 조망수용능력과 교사 및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 17(3), 239-257
- 조성이(2000). 유아의 성 특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수진(2013).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애착과 영아언어발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순옥, 이경화, 배인자, 이정숙, 김정원, 민혜영(2003). 유아사회교육. 서울: 창지사
- 조아영(2015). 어머니의 자녀성숙행동기대와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유아의 친사회적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은옥(2002). 유아의 기질에 따른 놀이성향과 놀이행동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정미(2013). 유아의 성·연령에 따른 사회적 행동과 정서조절력 및 공격성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재은(2001). 유아의 성별에 따른 교사의 상호작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채혜희(2014). 만 5세 유아의 또래관계에서 나타나는 괴롭힘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연화(2011). 남녀유아의 놀이성, 정서조절능력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 연구

- 구. 육아지원연구, 6(2), 147-164
- 최혜원(2012). 만 3세 유아의 또래간 갈등원인과 해결방안 유형분석.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혜정(2015). 혼합연령집단에서 유아의 사회적 갈등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송이(2015).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또래갈등 해결전략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애희(2009). 유아의 기질, 언어능력 및 대인관계유형이 유아의 사회적 힘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제인(1994). 아동의 사회측정 지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 사용에 따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정경(2010). 자유놀이에서 유아의 갈등상황에 따른 의사소통전략, 아동과 권리, 12(2), 293-312
- 황소영(2011). 또래관계 형성과정에서의 외톨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 변화 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Baron-Cohen(2003). *Essential difference: male and female brain and the about autism*. 김혜리, 이승복 역(2007). 그 남자의 뇌, 그 여자의 뇌. 서울: 바다출판사
- Bonomo. V.(2010). Gender Matters in Elementary Education: Research-based Strategies to Meet the Distinctive Learning Need of Boys and Girls. *Educational Horizons*, 88(4), 257-264
- Eisenberg, A.(1996). The conflict talk of mothers and children: Patterns related to cultures, SES, and gender of child. *Merrill-Palmer Quaterly*, 42(3), 438-452.
- Eisenberg, A., & Garvey, C.(1981). Children's use of verbal strategies in

- resolving conflicts. *Discourse Processes*, 4, 149-170
- Hartup. W.(1992). Conflict and friendship. In C, U. Shantz & W. W. Hartup(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New York: Cambridge
- Hay, D.(1984). Social in early childhood. In G. Whitehurst(Ed), *Annals of child development*(Vol. 1, pp 1-44). Greenwich, CT: JAI
- Hyun, E, S & Tyler, J, M(2000). Examination of early childhood practitioner's general perception of gender differences in young children. *Journal of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337-354
- Malloy, H. & McMurray. P.(1996). Conflict strategies and resolutions: peer conflict in an integrated early childhood classroom.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1, 185-206
- Miller, J.(1993). Learning from early relationship experience. In S, Duck(Series Ed), *Understanding relationship process: Vol. 2. Learning about relationship*(pp. 1-29). Newbury Park: Sage.
- Shaffer, D. R. (1994).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2nd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Publishing Co.
- Shantz, C. U.(1987). Conflicts betwee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8, 283-305
- Shantz, C. U. & Hobart, C. J.(1989). Social conflict and development: peer and siblings. In T. Berndt & G. W. Ladd(Eds.) *Peer relations in child development*(pp. 71-94). New York: Wiley
- Spradley, J. P(1980).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법. (이희봉 역). 서울: 대한 교과서주식회사. (원저 1998 출판)
- Virginia Bonomo(2010). Gender Matters in Elementary Education -

Research-based *Strategies to Meet the Distinctive Learning Needs of Boys and Girls*. educational HORIZONS(Summer 2010)

ABSTRACT

An ethnographic study on various aspect of peer conflict among five years old children based on gender difference

Chae, Hye Wo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five-year-old children's the various aspect of peer conflict based on gender in a day at the kindergarten. The study is analyzed the children's aspect of peer conflict based on gender with an ethnographic method. The subject matters to discuss are as follows:

1. How different are the causes of the conflict by gender of children?
2. How different are the method of the conflict by gender of children?
3. How different are the resolution method of the conflict by gender of children?

The research was conducted at Seulki ,a full-day class of Hayan kindergarten, which is located in Kyungki-Do, SeongNam-Si. Twenty

eight five-year-old children were the subjects of the research. The data for this research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12th, 2015 to December 23th, 2015 using 22times of participating observations and informal interviews with the teacher. A field jotting and recording contents were reconstructed by transcription. The collected data were coded and categorized for analysis.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study as follows.

1. There were some gender differences between the girls and the boys in source with conflict.

First, the girls had conflict in the process of taking the initiative from the interacting or the play with same age group and the boys had that from toys they played with or ownership in the territory.

Second, the conflict among the girls has started from having comments about the rules and from the interrupting games for the boys.

2. It shows aspect that conflict was developed by verbal strategy for the girls and physical strategy for the boys. There could be found that the girls went through conflict by dividing themselves into different sides and the boys suffered alone. Lastly, the girls argued in undertones, but the boys raised their voice when they insist on their own way.

3. There were also some different ways to resolve troubles between the girls and the boys group. The girls tried to compromise with each other to

bring the matters to an amicable settlement. The boys, by comparison, fought to the finish with aggressive attitude. To resolve their conflict, the girls tried to conciliate others, but the boys tried to run away from the situation.

As stated above, it could be said that girls and boys have each different way to suffer and resolve their conflict.

On the basis of this result, gender differentiation in children should be respected and considered with care when we educate them.